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英祖代 『승정원일기』 改修本
편찬에 관한 기록학적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인 영 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영조대에 편찬한 승정원 개수본일기에 대해 기록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그 특징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수본 편찬이 현대 기록학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는 승정원일기 개수본 편찬이 조선의 전통적인 기록관리 방식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개수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절차를 파악하였다. 개수 과정은 전거자료를 선별, 수집하여 이를 출처별로 분류 보관하였다. 범례에 따라 개수본일기에 수록할 내용을 전거자료에서 등출하여 작성한 뒤 편철하여 보존하였다. 이는 개수 작업이 일관된 기록관리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구된 개수본일기를 크게 형태와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개수본일기의 기록학적 특징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인조대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를 형태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일기가 작성된 순서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간지에서부터 경연·상참여부 부분은 두 일기가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출납문서를 등사한 부분은 수록된 문서의 유형과 문서별 작성 형태는 거의 일치하였고 기재순서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존재했다. 국왕과 신하의 언동(言動)을 등사한 부분의 경우, 개수본일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보이며 작성된 형태는 동일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있음을 발견했다. 이어 범례를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두 일기 모두 범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일기에 수록하고 있었다. 이로써 개수본일기를 편찬할 때 기존의 승정원일기와 형태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복구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두번째로 전거자료와 개수본일기를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개수본일기의 내용이 얼마나 전거자료를 정확히 인용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燼餘日記, 備邊司謄錄, 厲祭謄錄, 仁祖實錄을 각각 개수본일기와 비교한 결과 전문을 그대로 베끼는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거나, 요약·발췌하는 형태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쓰여진 개수본일기의 본문과 인용된 전거자료의 본문이 서로 대부분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개수본일기가 기록을 구성하는 요건인 구조, 내용, 맥락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위의 분석을 통해 본래의 승정원일기처럼 복구하여 재현하고자 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은 현대보다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겨 후대에까지 전승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수 과정에서 원본 기록과 가깝게 재현하고자 했던 방식, 다양한 자료를 찾아 복구에 활용하고자 했던 방식 등이 지금 현대에 기록을 보수, 보존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공한다.

주요어 : 승정원일기, 개수, 개수본일기,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

학 번 : 2017-26420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4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제 2 장 『개수본일기』 편찬과 기록관리체계	8
제 1 절 개수본일기의 개수 목적과 과정	8
제 2 절 개수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절차	12
1) 수집 · 선별	12
2) 분류 · 편철	19
3) 보존 · 관리	20
제 3 장 『개수본일기』의 기록학적 특징	21
제 1 절 개수본일기의 형식상의 특징	21
1) 형태	21
2) 범례	24
3) 수록기사 양상	31
제 2 절 전거자료 분석을 통한 개수본일기의 내용상의 특징	47
1) 『燼餘日記』	47
2) 『備邊司謄錄』	49
3) 『厲祭謄錄』	51
4) 『仁祖實錄』	53
제 4 장 결 론	62
참고문헌	65
Abstract	74

표 목 차

<표1> 개수본일기 전체 전거자료 유형	12
<표2> 소장처별 전거자료 유형	14
<표3> 개수본일기 인조대 범례 적용	26
<표4> 인조 개수본일기 중 범례에 없는 유형	27
<표5> 인조 개수본일기 중 범례에 없는 기사 본문	28
<표6> 날씨 기록 수록 형태	31
<표7> 비망기 수록 형태	34
<표8> 영조대일기 수록 교서와 원문서 비교	36
<표9> 계사 수록 형태	38
<표10> 초기 수록 형태	40
<표11> 초기 문서의 기두와 결어	40
<표12> 서계 수록 형태	41
<표13> 장계 수록 형태	42
<표14> 장계 기두와 결어	42
<표15> 상소 수록 형태	43
<표16> 상소 문서의 기두와 결어	43
<표17> 단자 수록 형태	44
<표18> 개수본일기와 비변사등록의 본문	50
<표19> 효종대 개수본일기와 여제등록 본문 비교	52
<표20> 반정과 관련된 기사 본문 비교	54
<표21> 인물과 관련된 기사 본문 비교	56
<표22> 관직제수와 관련된 기사 본문 비교	58
<표23> 전교와 관련된 기사 본문 비교	59

그 립 목 차

<그림1> 승정원일기 인조3년(1625) 4월 1일	21
<그림2> 승정원일기 영조4년(1728) 4월 4일	22
<그림3> 승정원일기 인조4년(1626) 5월 30일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란 승정원에서 기록한 국정일기이다.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크게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도승지, 좌·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 각 1원과 주서 2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로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하였다.¹⁾ 또한 국왕의 시종, 궁내에서의 숙직, 6조사 분장, 사신의 접대, 국왕의 자문에 대한 응대, 국정에 대한 상언·상소, 승정원내의 문서관리 등 국정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업무에 참여하였다.²⁾ 이러한 승정원의 업무와 출납된 문서를 매일 기록한 것이 승정원일기다. 승정원일기는 주서가 작성을 맡아 기록했다. 이를 1개월 단위로 1~2책을 묶어 다음달 20일에 제출하여 말일까지 국왕에게 보고하여 완성하였다.

승정원일기는 본래 조선 초기부터 작성되어 일기가 존재하였으나 여러 차례 소실을 반복하면서 현재 인조 원년(1623) 3월부터 순종 4년(1910) 8월 까지 총 3,243책이 전해져 오고 있다.³⁾ 처음 승정원일기가 소실된

※ 개수본일기: 본문의 ‘개수본일기’는 인조대 개수본일기를 가리키며, 다른 왕조의 개수본일기의 경우 묘호를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 본고의 승정원일기 원문과 번역문은 승정원일기 웹사이트에서 인용하였으며, 그 외 원전 자료들의 원문의 출처는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經國大典》 卷 1, 吏曹 京官職 承政院條.

2) 한충희, 1987, 「조선초기 승정원연구-실제기능과 통치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59, p.51~68.

3) 『文宗實錄』 卷12 2年 2月 22日, 始撰世宗實錄, 許誦, 金銚, 朴仲林, 李季甸, 鄭昌孫, 辛碩祖等, 分年撰修, 皇甫仁, 金宗瑞, 鄭麟趾, 摠裁監修. 時史官多避忌, 史草或有墨抹塗竄者, 或只謄承政院日記, 以塞責耳. 『世祖實錄』 卷40 12年 11月 17日, 近因還紙之利, 紙匠男女, 或偷承政院日記, 或偷寺社經文. 『銀臺便攷』 卷4 日記 修史附, 政院之有日記, 始自世祖朝. 世祖朝以前, 但有翰林院時政記

계기는 임진왜란으로, 이로 인해 조선 초기부터 작성한 일기가 모두 소실되었다. 소실 이후 선조 28년(1595)에 임진년 이전의 일기에 대한 개수(改修)를 시도하였으나 복원성과가 당대에는 거의 없었다. 반면 임진년 이후의 일기는 개수하였으나 이마저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으로 재차 소실되었다. 다행히 당시 승정원 서리가 승정원일기 26권과 광해군 대 조보(朝報) 전수(全數)를 옮겨둔 것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승정원일기를 개수할 수 있었다.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조 20년(1744) 10월 창덕궁(昌德宮) 인정문(仁政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또다시 승정원일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영조 22년(1746)에 일기청을 설치하고 인조 원년(1623)에서부터 경종 1년(1721)까지의 일기를 개수하기로 정하고 총 548책으로 개수하였다. 이후 고종 25년(1888)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1851~1888까지의 일기가 소실되었다. 이때 소실된 일기에 대하여 1889년에 개수를 시작하여 1890년에 개수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승정원일기가 소실될 때 마다 ‘개수’라는 것을 통해 일기를 복구하였다. 개수란 ‘고쳐서 바로 잡거나 다시 만듦’이라는 뜻이며 복구할 기록에 필요한 전거자료들을 선별·수집하고 이를 기록에 전제하여 편찬하는 과정을 말한다.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 사례뿐만 아니라 선조실록 편찬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선조실록의 경우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해 임란 이전의 기사가 적었다. 따라서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을 수집하였다. 『미암일기(眉巖日記)』, 『동각잡기(東閣雜記)』 등 일기류, 조보 등의 기록이 전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는 어떠한 기록을 만들 때 다양한 자료들을 선별, 수집하여 활용하는 전통이 조선사회에 구축되어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수는 조선의 전통적인 기록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기록학의 ‘보수’ 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기록학에서는 기록의 유실을

… 世祖初, 始立注書記注之法 ….

4) 강성득, 2004, 「英祖代 承政院日記의 改修에 관한 一考察」,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p.5~9.

예방하고, 이미 손상된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보존(Preservation)과 보수(Conservation)로 ‘보존’은 열화나 손상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는 과정 및 이를 위한 시설, 기술 등 관리적 재정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⁵⁾ ‘보수’는 화학적·물리적 조치를 하여 가급적 오랫동안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수하거나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다.⁶⁾ 이 두 가지 기록학개념은 기록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보수·관리 방식이고, 개수는 없어진 기록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복구방식이다. 엄밀히 따지면 기록학의 보존과 보수와 조선의 개수는 전제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록을 회복시킨다는 넓은 맥락에서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수와 기록학의 보존, 보수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수가 현대 기록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수과정을 살펴보면 개수 작업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록을 복구할 때 기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통방식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기록 복구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서를 복구하거나 편찬할 때 이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수집하려 하지 않고 한 가지 유형의 자료들을 중심으로만 편찬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수본일기 편찬에 대한 기록학적 분석과 재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록학적으로 개수본일기에 대해 검토한 연구가 적은 상황이다. 기존의 승정원일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역사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수본일기 편찬에 관해 검토하여 개수본일기의 기록학적 특징과 의미를 재해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현대 기록학 관점에서 개수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절차를 분

5)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p.119.

6) 한국기록학회, 2008, 위의 책, p.117.

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인조대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를 형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두 일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셋째, 전거자료와 인조대 개수본일기를 내용적 측면으로 비교하여 개수본일기가 전거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용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개수본일기가 갖는 기록학적 의미와 기대효과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에서는 영조대에 행해진 개수본일기 편찬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개수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절차를 분석하고 개수본일기의 고유한 특징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대 기록학에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시사하는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정원일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승정원일기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 시킬 수 있다. 첫째, 승정원일기의 기사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거나 실록관의 비교연구, 문서 체계,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논문⁷⁾, 신병주⁸⁾, 김종수⁹⁾, 조계영¹⁰⁾, 명경일¹¹⁾, 윤

7) 이근호, 2003, 「승정원일기 보고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이흥두, 2003, 「승정원일기의 문헌학적 특징과 정보화 방안」, 임천환, 2003, 「승정원일기 왕명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정만조, 2003,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적 가치」, 최재복, 2003, 「승정원일기 대화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한국사론』37.

8) 신병주, 2001,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과의

훈표¹²⁾ 등의 논문이 있다. 두 번째는 개수에 관한 연구로 주로 개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여 개수의 성격을 고찰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강성득¹³⁾, 이근호¹⁴⁾, 오항녕¹⁵⁾ 논문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견해를 통해 승정원일기의 전반적인 체계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수본일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개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개수의 배경과 과정을 정치적, 역사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개수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는 개수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개수 연구의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개수본일기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에 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논문으로는 전거자료를 분석한 강성득(2007)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거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인용된 자료들을 통해 개수가 가지는 정치적 성격을 확인 하였다. 즉 개수본일기에 활용된 전거자료는 국왕인 영조의 의지가 관철되어 있으며 선별적으로 전거자료가 선별되어 수록되었다는 점은 결국 영조대 개수작업이 당대의 역사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전거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개수본일기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정원일기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해보

비교를 중심으로」, 『규장각』24.

9) 김종수, 2003, 「승정원일기 편찬체제와 타 문헌과의 비교 검토」, 『인문학논총』3.

10) 조계영, 2016, 「승정원일기의 수납과 관리에 대한 고찰」, 『규장각』49.

11) 명경일, 2014, 「정조대 전교축을 통해 본 승정원일기의 문세 등록 체계」, 『고문서연구』44.

12) 윤훈표, 2010, 「승정원일기 경연 기사의 특징」, 『사학연구』100.

13) 강성득, 2004, 「영조대 승정원일기의 개수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2007, 전거를 통해 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의 성격」, 『사학연구』88.

14) 이근호, 2004,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과정의 검토」, 『조선시대사학보』3.

15) 오항녕, 2006, 「조선후기 승정원일기 개수 연구」, 『태동고전연구』22.

면 기록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고 주로 역사학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오항녕(2006)의 논문이 일기청등록 해제의 내용을 확대하여 역사학에서 제기하는 사료비판에 대해 기록학적 관점으로 검토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개수에 대해 기록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수과정이나 개수본일기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학적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개수본 일기에 관해 기록학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은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록학 관점에서 개수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절차를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인조대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를 형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두 일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거자료와 인조대 개수본일기를 내용적 측면으로 비교하여 개수본일기가 전거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용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수본일기가 갖는 기록학적 의미와 기대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조 1년(1623)~27년(1649)의 개수본일기와 영조 1년(1725)~5년(1729) 치의 일기를 번역본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목차의 진행순서대로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첫째, 개수본일기의 생산 목적과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그런 다음 개수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추적하였다.

둘째,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개수본일기가 영조대 일기와 형태적으로 얼마나 비슷하게 복구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두 일기의 구조를 비교하였으며, 둘째로 범례를 각 일기에 적용시켜 수록된 문서의 유형들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 일기에 수록된 기사들의 양상을 비교하였는데, 기사의 문서 유형을 『전율통보(典律通補)』 문서식(文書式)에 입각하여 문서의 수록 형태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의 구조, 범례에 따른 수록기사 유형, 수록 형태가 대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전거자료 분석을 통해 개수본일기의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 보았다. 일기류에는 신여일기를 선정하였다. 등록류의 기록은 비변사등록, 여제등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록은 인조실록을 선택하여 이를 각각 개수본일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유형의 전거자료는 개수본일기에 수록된 본문과 내용적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2 장 『개수본일기』의 편찬과 기록관리체계

제 1 절 『개수본일기』의 개수 목적과 과정

영조 20년 연간에 발생한 화재로 승정원일기가 소실되었고,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영조 22년에 개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개수의 직접적인 계기는 화재로 인한 기록의 소실이지만, 이전의 개수와 달리 영조대 개수는 국가 대공역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개수를 추진하는데 전반기부터 시행해오던 서적 편찬과 탕평정책이 개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강력한 왕권 확보와 탕평정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서류 등의 서적을 편찬했다.¹⁶⁾ 이를 통해 당파 갈등을 해소하고 탕평파 인물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구조를 개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때 승정원일기가 참고자료로서 필요하였고 따라서 개수를 시도한 것이다. 즉 승정원일기라는 기록이 실록과 달리 열람이 용이하고 이전부터 국조고사와 관련된 전례를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라는 점 등 승정원일기의 고유한 특징 개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¹⁷⁾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된 개수 작업은 그 목적 역시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영조의 의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수를 통해 탕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순조실록에는 승정원일기의 평가에 관련한 글이 수록되어있는데 여기서 개수의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 조정의 문헌은 『정원일기(政院日記)』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실을 두루 갖추고 국가의 제도를 근거로 하여 『등록(謄錄)』의 체(體)에다가 역

16) 강성득, 2004, 위의 논문, p.9~27.

17) 이근호, 2004, 위의 논문, 148~152.

사의 용(用)까지 겸하였습니다. 그 긴요하고 중대함이 이와 같은데 있으니¹⁸⁾

체용(體用)은 원래 ‘신체의 각 부분’과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체는 본체 혹은 실체, 용은 본체의 작용으로 정의 되고 있지만 체와 용이 각각 실체와 기능, 본질과 현상으로 번역될 수 있다.¹⁹⁾ 등록의 체와 역사의 용을 겸하였다는 것은 승정원일기가 등록이라는 본체와 작용인 활용을 겸비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작용은 전례와 고사를 징험하는 기능이자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승정원일기가 체와 용을 겸한 중요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대한 당대의 이러한 인식이 개수 작업의 명분이 되었을 것이다. 개수 작업이 시작되고 개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승정원일기와 비슷하게 복구함으로 기록을 다시 생산하고 업무에 활용, 보존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왕과 신료들 간의 논의 끝에 시작된 승정원일기의 개수는 영조 22년(1746) 5월 16일 일기청의 설치로 본격화되었다.²⁰⁾ 소실된 승정원일기에 대한 개수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0월 23일 국왕이 찬집청당상(纂輯廳堂上)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²¹⁾

이후 동년 11월 초3일에 개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수 시 참고할 자료들에 대한 논의로 시강원과 홍문관에 전해오는 조보와 사가(私家)의 일기의 연설(筵說)을 확인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활용, 설청(設廳)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다.²²⁾

본격적인 개수 작업은 2년 뒤 영조 22년(1746)에 이루어졌다. 동년 5월에는 개수범위가 인조대로 확정되는 등의 개수 작업이 구체화 되었다. 동년 5월 16일에는 설청을 하였다. 명칭은 선조(宣祖) 때의 전례를 들어 “일기청”으로 정하였다. 같은 달 21일 당상과 낭청을 선임하고, 직무실과

18) 『純祖實錄』 卷19 16年 8月 24日, 我朝文獻, 莫如 政院日記, 蓋其該括事實, 憑信掌攷, 以謄錄之體, 兼史策之用, 其爲緊重, 有如是矣.

19) 김한상, 2018, 「體用論과 朱熹 철학의 太極 개념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74, p.5~8.

20)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5月 16日.

21) 이근호, 2004, 위의 논문, p.147~148.

22) 강성득, 2004, 위의 논문, p.12.

서리 등의 인원을 규정한 『일기청사목(日記廳事目)』과 『개수범례(改修凡例)』가 완성되었다.²³⁾ 자세한 개수과정은 『일기청등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²⁴⁾

일기청등록에 기록된 개수 과정 중 기록학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조 22년(1746) 5월 24일 당상 홍계희가 국왕에게 신여일기를 일기청에 보내는 것을 규칙으로 할 것과 당후일기(堂後日記), 춘방일기(春坊日記)에서 글을 뽑아낼 것을 요청하였다. 정본(正本)의 종이로 사용할 후백지(厚白紙)를 다듬이질 할 것, 사가의 조보를 차출하는데 이를 내주지 않는다 해도 가져와야 할 것과 수량이 많으면 역로(驛路)를 통해 가져올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5월 25일에는 서역(書役)을 한 뒤에 ‘進’자를 쓸 것을 규칙으로 하였다.

7월 2일, 1630년~1661년 32년간의 조보와 각사등록의 서역이 가장 급하며, 매일 사진(仕進)하는 자가 부족하여 이를 절목으로 마련하였다. 이것이 『일기청추가절목日記廳追加節目』으로 총 8가지의 조항으로 되어있다.²⁵⁾ 이 중 기록학적 측면에서 볼 만한 부분을 추려보면 각사등록은 모두 본청으로 가져와 보관하고 내하문자(內下文字)의 경우 각별히 관리할 것을 정하였고, 조보의 경우 “모두 한성부로 하여금 감결을 보내 거둔다.”라는 조항이 있다. 동월 26일 1623년 인조 이후의 일기에 참고할 신빙 자료가 부족하여 완평일기(完平日記)²⁶⁾, 연평일기(延平日記)²⁷⁾ 등의

23)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5月 21日.

24)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5月 16日 ~ 英祖 23(1747) 11月.

25)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7月 2日, ①낭청 매 1원에게 각각 한 달 치 일기를 주되, 한 달 치 일기를 끝내기 전에는 체개(遞改)를 허락하지 않는다. ②매일의 서역은 5장을 정식(定式)으로 하되, 장수(張數)를 계산하여 일수(日數)를 정하고 일수를 계산하여 기한을 정한다. 가령 한 권이 100장이 라면 하루에 5장씩 쓰고 20일이면 한 권을 끝마칠 수 있으니, 날마다 한 작어에 대해서는 비록 모질게 독촉할 수 없더라도, 20일간을 통산하여 만약 한 권을 다 쓰지 못하였다며 해당 낭청을 나처(拿處)한다.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일기청등록』 p.10~11을 참고할 것.

26) 완평일기(完平日記): 이원익(李元翼)의 일기.

27) 연평일기(延平日記): 이귀(李貴)의 일기.

사가자료에서 승정원일기의 식례에 합당한 것을 뽑아 만들 것을 정하였으며 신여일기(燼餘日記)²⁸⁾의 경우 그대로 베끼라는 원칙을 정했다.

9월에는 근무태만인 관원들에 관해 나처(拿推)와 경고 전교를 내렸으나, 서역이 급해 처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11월에는 1690년~1698년까지 9년 치 일기를 완성하였고 남은 일기의 개수 작업이 9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규식을 변경하였다. 『일기청 추가절목(日記廳追加節目)』²⁹⁾으로 이 중 7조에 의하면 각사등록은 나누어 보낼 수 없다는 점, 8조에는 인수인계 시간을 묘시(卯時)로 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영조 23년(1747) 6월에는 『일기청교정절목』을 연석(筵席)에서 정탈(定奪)한대로 수정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조 낭청 1원은 2년 치 일기를 교정하고 체차(遞差)한다. 3조 낭청은 본청에 사진(仕進)하여 교정하고, 40일 이내 기한이 초과될 시 직숙(直宿)하며 교정한다. 4조 1년 치가 끝나면 말미에 ‘낭청 000교정’이라고 쓴다.

동년 6월 12일에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에 대해 강화서고 내 실록을 베껴 상세히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19일 인묘조 실록을 모두 베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판단하여 반정 부분만 베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9월 9일, 99년 치의 서역이 끝이 났고, 교정과 장책(粧冊)을 하고 있는 중에 신여일기(燼餘日記)와 등록을 다 작성하지 않은 관원을 엄하게 추고할 것을 국왕에게 요청했다.

11월 9일에는 개수본은 봉하여 올릴 때 절차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 당상과 낭청이 받들고 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기청의 경우 의궤를 설

28) 신여일기(燼餘日記): 승정원일기의 구건(舊件).

29) 『日記廳臚錄』 英祖 22年(1746) 11月17日, ①본청의 낭청은 지금 30원인데 다시 15원을 뽑아 합하여 45원으로 한다. ②이번 낭청 45원은 일을 마칠 때까지 그대로 있게 하고 1년 치의 일기를 다 쓰기 전에는 외임, 겸사관, 당후미 기타 긴요한 직임에 일절 차임하지 않는다.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p.28~29를 참고할 것.

치하지 않아도 되며, 연교(筵敎), 초기(草記), 이문(移文) 등을 갖추어 기록을 남겨두고 이를 해방승지(該房承旨)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신여일기는 이미 다 베껴 쓴 것이므로 한번 품정(稟定)하여 세초(洗草)하도록 하였다.

11월 18일에 내하일기, 신여일기 등을 내일 세초한다 하였으나, 신여일기의 경우 형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세초하고 온전한 책 모양의 일기는 구본(舊本)을 놔두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온전한 책 31권을 뽑아 정원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개수 작업 결과 총 548권을 봉하여 올리고 『개수일기등록청절목(改修日記謄錄廳節目)』을 마련하였다. 개수일기등록청절목 1조를 보면 등록 2건을 정원과 춘추관에 1건씩 두고, 명칭은 ‘개수일기등록청(改修日記謄錄廳)’으로 하며, 세초 뒤에 해방승지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제 2 절 개수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절차

1) 수집 · 선별

이 장에서는 개수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절차를 수집·선별에서 보존·관리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기록관리란 현대 기록학 정의에 따르면 한 조직에서 생산된 기록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 보호, 관리하는 업무 절차, 과정을 말한다.³⁰⁾ 보통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기술, 이관, 평가, 폐기, 보존, 활용, 수집 등의 업무로 구성된다. 개수 작업의 경우는 크게 생산, 분류, 편철, 보존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수본일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전거자료의 선별과 수집 과정을 거쳤다. 이 장에서는 선별, 수집 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 기록학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영조 20년(1744)에 승정원일기가 소실되고 이를 개수하기 위한 논의가

30) 박지태, 2011, 『기록관리개론』, 국가기록원, p.23

이뤄졌다. 개수는 소실된 기록을 이전의 기록과 비슷하게 복구하는 것으로 개수본일기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선정하여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따라서 그 해 11월 초 3일에 전거자료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등록류, 신여일기 등 일기류, 조보류 등 다양한 자료들이 언급되었다. 개수본일기에 수록할 기록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영조는 사가문자(私家文字) 등 야승(野乘)을 수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으며, 조보 등의 공식적인 자료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킬만한 기록들은 배제하고자 하였다.³¹⁾

특히 연설(筵說)과 소장(疏章)에 관해서 영조와 대신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영조와 조현명(趙顯命)은 수록 불가를, 이철보(李喆輔)는 수록을, 송인명(宋寅明)과 박춘보(朴春普)는 선별적 수록을 주장했다. 영조는 연설과 소장을 배길 경우 개정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반대하였다. 이철보는 연설이 후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록해야 하며 조정의 일이 소장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보는 소장의 경우 후세의 감계(鑑戒)를 위해 수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조의 의견에 따라 연설과 소장은 개수본일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신여일기의 연설과 소장은 입력했다.³²⁾

이렇게 결정된 선별 내용과 개수일기범례를 바탕으로 참고 자료를 수합하였다. 수합된 전거 자료의 유형을 선행연구에 따라 일기류, 등록류, 조보류, 정사류, 의궤류,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승정원일기의 양이 방대한 만큼 전거자료로 이용된 자료의 유형도 다양한데, 그 중 빈도수가 높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1>와 같다.³³⁾

<표1> 개수본일기 전거자료 유형

전거자료 유형	이름	소장처
일기류	신여일기(燼餘日記)	관청(승정원)

31) 강성득, 2007, 위의 논문, p.727.

32) 강성득, 2007, 위의 논문, p.730~731.

33) 강성득, 2007, 위의 논문, p.762 <부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춘방일기(春坊日記)	관청(시강원)
	내하일기(內下日記)	-
	박정현일기(朴鼎賢日記)	사가
등록류	영접도감등록(迎接都監謄錄)	왕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관청
	선혜청등록(宣惠廳謄錄)	-
	훈련도감등록(訓練都監謄錄)	-
조보류	조보(朝報)	관청 소장 개인 소장 개인 일기 등사
정사류	이비정사(吏批政事)	-
의궤류	도감의궤(都監儀軌)	왕실
	예조의궤(禮曹儀軌)	관청
기타	이조공사치부(吏曹公事置簿)	-

위의 <표1>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편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기류의 경우 신여일기, 춘방일기, 내하일기³⁴⁾, 박정현일기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등록의 경우 영접도감등록, 비변사등록, 선혜청등록, 훈련도감등록이 대부분 이용되었다. 조보는 관청의 조보와 사가에서 수집된 조보 및 개인 일기에 등사된 조보가 사용되었다. 정사의 경우 이비정사의 내용이 주로 참고 되었다. 의궤의 경우 도감의궤와 예조의궤를 주로 참고하였다.

하지만 관청과 사가에서 각각 생산된 기록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표1>는 기록의 성격별로 유형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록학 이론 중 출처주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따라 전거자료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거자료를 선별, 수집할 때 출처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거자료의 유형에서 더 나아가 기록학 이론에 의거하여 전거자료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록관리원칙을 간략히 살펴보면 출처주의 원칙은 기록의 출처(기록을 생산한 개인, 조직, 기관, 가문 등)가 같은 기록들 끼리 모아 다른

34) 내하일기(內下日記)는 내일기(內日記)에서 등출한 것으로 왕실의 별도 기록으로 추정되는 기록이다. (강성득, 2007, 위의 논문, p. 753)

기록들과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분류, 관리 원칙이다.³⁵⁾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기록이 원래의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관리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본래 기록에 부여된 질서를 흐트러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거자료를 출처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는데 소장처를 출처로 하여 나누면 <표2>으로 정리된다.

<표2> 소장처별 전거자료 분류

소장처	이름
왕실	내하일기
	영접도감의궤
	도감의궤
	조보
관청	비변사등록
	예조의궤
	신여일기
사가	박정현일기
	조보

<표2> 중 왕실에서 수집된 기록 중 내하일기, 영접도감의궤, 도감의궤가 주로 인용되었고, 관청 기록 중에서는 비변사등록, 예조의궤, 신여일기가 대부분 인용되었다. 사가에서 수집한 기록에는 박정현일기와 조보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이렇게 출처별로 전거자료를 분류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전거자료를 선별, 수집할 때 각 관청이나 개인 등 소장처 출처별로 이뤄졌다. 수집 이후 분류하여 개수 작업을 마칠 때 까지 각 출처별로 기록을 물리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기록학의 출처주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며 조선사회에서도 기록관리의 원칙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전거자료의 출처별 분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거 유형별로 선별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기류 중 내하일기는 영조가 별도로 반하(頒下)한 자료로 내일기(內日

35) 한국기록관리학회, 2016,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아세아문화사, p.30

記)에서 등출한 것이다. 내하일기는 주서일기(主書日記)보다 상세하여 개수본을 구성하는데 필수 자료로 선별되었다. 영조는 다섯 개 조정에 내하일기류가 있으며 대소조회의 절목이 자세히 기록되어있어 이를 참고할 것을 명하였다.³⁶⁾ 신여일기는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일기라는 점에서 등출되었다. 당후일기(堂后日記)류도 전거자료로 이용되었다. 당후일기란 주서가 기록한 승정원일기의 초책(草冊)으로 개수본일기에 필수적인 자료로 등출되었다. 관청의 일기류 뿐만 아니라 사가의 일기류도 수합되었는데 완평일기(完平日記), 연평일기(延平日記), 남한일기(南漢日記)³⁷⁾ 등이 인용되었다. 사가의 일기류가 선별된 이유는 일기를 생산한 인물에 관련되어 있다. 완평일기의 생산자 이원익(李元翼, 1547~1634), 연평일기의 생산자 이귀(李貴, 1557~1633) 그리고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 1562~1613), 윤안국(尹安國, 1569~1650) 등의 인물들의 일기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인조 반정과 관련된 사람들로 반정을 기록하기 위해 전거자료로 선별되었다.

조보류 중 관청 조보류와 사가 일기에 등사된 조보류가 개수본일기에 인용되었다. 특히 사가 등출 조보류는 거의 인조대에 집중되어있다. 개수당시 인조대에 생산한 조보를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가에서 베껴둔 조보를 적극 사용하였다. 또한 99년이라는 방대한 개수범위를 채우기 위해 사가 전거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관청의 등록은 각사의 초기(草記), 서목(書目), 어사회계(御史回啓), 이·병조세초(吏兵曹歲抄), 서용(敍用) 등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어 개수본의 전거자료로 활용되었다.³⁸⁾

이상의 선별 작업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첫째, 영조의 주관에 개입되었으며 이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선별에 영향을 끼쳤다. 연설과 소장을 수록하지 않는 등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만한 기록을 철저히 배제

36) 『承政院日記』英祖 22年 5月 20日, … 上曰, 自內有日記, 多有可考事, 從當謄出頒降. 而五朝日記皆在矣. 大小朝會等節目, 無不俱載 ….

37) 남한일기(南漢日記)란 석지형(石之珩)이 기록한 일기로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8) 강성득, 2007, 위의 논문, p.743.

하고자 하였던 점과 인조반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자 했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기록의 선별 기준을 영조대일기로 삼았다. 영조대일기에 수록된 형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공적기록 뿐만 아니라 사가의 기록까지 다양한 기록을 선별하였다.

본격적으로 각 관청과 지방, 사가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기록의 생산과 수집은 각 관청에서 관행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규정을 따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수본일기 편찬 작업을 통해 조선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기록을 통해 확일 할 수 있다. 『일기청등록』 중 이문질(移文秩)과 내관질(來關秩)을 보면 개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이문질’이란 중앙관청에서 지방관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말하는 것으로 개수 당시에는 일기청에서 승정원, 호조, 비변사, 의정부, 경기감영(京畿監營), 남양부(南陽府), 이천부(利川府), 광주부(廣州府), 예산(禮山), 나주(羅州) 등으로 공문을 보냈다.

영조 22년(1746) 5월에는 숙종 36년(1710), 45년(1719)의 일기 2권을 본청으로 실어올 것을 승정원에 요청하였다.³⁹⁾ 공홍감영(公洪監營)으로 보내는 공문에는 ‘조보가 있거든 집안에서 봉하여 표지를 붙여 전교한대로 역로로 올려 보내라.’라고 되어있으며 은진(恩津) 이계(李滄)의 100년간의 조보, 정사, 소차 중 인조 1년(1623)~경종1년(1721)까지의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⁴⁰⁾ 광주부에는 본부에 있는 병자년 일기를 참고 후에 다시 돌려보낼 때 단단히 봉하여 보낼 것을 말하였다.⁴¹⁾ 삼남(三南)에 보내는 문서에는 조보를 거두라 하였지만 몇 달째 소식이 없으니, 수량 상관없이 모두 찾아 밤낮 없이 올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⁴²⁾ 9

39)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5月.

40)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5月.

41)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5月 27日.

42)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7月.

월 남양부(南陽府) 서면(西面) 홍법동(洪法洞) 집에서 『은대사강(銀臺史綱)』을 즉시 거두어들이도록 하였고⁴³⁾ 예산에는 고(故) 박판서(朴判書) 일가 박용인(朴龍仁)에게 자료를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⁴⁴⁾ 이천부(利川府)에도 이생원(李生員) 집안의 『은대일기(銀臺日記)』를 즉시 올려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⁴⁵⁾ 12월 나주에는 일기를 봉하여 관인을 찍고 역로를 통해 올려 보낼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⁴⁶⁾ 영조 23년(1747) 1월 시장원에 있는 『심양일기(瀋陽日記)』를 본청에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⁴⁷⁾

다음은 내관질(來關秩)이다. 내관질은 관청간의 공문으로 첩보(牒報)에 관한 문서들이 대부분이다. 영조 22년(1746) 7월 예산현감이 첩보하는데 자료가 세월이 오래지나 산실되어 현재 4, 5권이라는 내용을 보냈다.⁴⁸⁾ 남양도호부사가 홍법동의 『은대사강』 2권을 감봉하여 올렸다는 문서를 보냈다.⁴⁹⁾ 11월 전라도 나주목사가 본주의 호장 일기 한통을 별책에 옮겨 베껴 지난달에 올려 보냈다는 내용을 첩보하였다.⁵⁰⁾ 영조 23년(1747) 1월 지평현감이 생원 윤성(尹鉞)이 고한 사실을 첩보하였는데, 일기가 들어있던 상자가 속노(粟奴)가 죽어 잃어버렸다는 내용이다.⁵¹⁾

이상 이문질과 내관질을 종합해보면, 관청간의 협조 공문을 통해 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각 관청들은 공문의 내용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여 본청으로 보냈다. 자료를 올려 보낼 때에는 봉(奉) 한 뒤에 역로를 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집의 전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각도 및 집안에 조보를 포함한 자료들을 올려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내지 않아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는 과정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수집 방법론에 관해 좀 더 살펴보면, 개수본일기 편찬의 수집 방법은 개수할 시기의 기록을 모두 수집하는 것이다. 특히 인조대의 경우 자료

43)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9月.

44)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9月.

45)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10月.

46)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12月.

47) 『日記廳謄錄』 英祖 23年(1747) 1月.

48)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7月.

49)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7月.

50)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11月.

51) 『日記廳謄錄』 英祖 23年(1747) 1月.

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집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과 개인의 기록까지 수집하는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이 따랐지만 당대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2) 분류 · 편철

이런 과정을 통해 수합된 자료들은 본청에서 분류, 보관하여 개수본일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대다수 관청에서는 기록을 선별, 수집, 분류, 등서하여 등록을 만들었다. 보통 등록은 준현용기록물로 생산 후 해당 기관의 업무에 참고용을 활용되었다. 개수본일기도 이러한 등록의 편찬 과정을 통해 생산되었다.

개수 당시 본청에서 수정한 일기를 정서하는데 사용한 책자를 다른 문서와 섞어둘 수 없어 현판에 들어갈 송판, 쇠못 등을 진배하였던 것으로 보아 분류 작업은 기록의 출처별로 이루어졌을 것이다.⁵²⁾ 즉 각 관청과 사가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물리적으로 분류할 때 출처별로 이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보통 등록을 편찬할 때 처럼 각종 등록에 첨지를 붙인 다음 각 문서를 등사하여 오침철장법의 형태로 기록을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과정 중에 중앙과 지방, 사가에서 옮겨온 문서와 서책이 매우 복잡해져 고지기 2명으론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고의 고지기 1명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⁵³⁾

분류를 마친 기록들을 개수본일기로 편철하기 위해 종이, 풀가루 등 잡물이 많이 필요했다. 감결질(甘結秩)에 의하면 진배할 물건에 대해 감결한 내용들이 나온다. 의포, 배접하기 위한 휴지, 풀가루는 정원의 사례에 따라 황간 대로 진배하였고, 등록에 붙인 첨지와 날씨 기록용 책지는 재상휴지(災傷休紙)를 사용하였다.⁵⁴⁾ 이렇게 편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52)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7月.

53)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9月.

호조, 형조, 공조 등의 기관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3) 보존 · 관리

현대의 기록관리 체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연한을 7가지로 규정하는 반면 조선에서는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현대와 같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등록류 기록은 생산 당시부터 이미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간을 보장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보존 연한처럼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기록의 보존 기한이 존재했었던 것이다.

이러한 등록의 보존과 관리는 준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으로 나누어 보관, 관리된다. 업무에 참고·활용되는 준현용기록은 각 관사의 별도의 장소나 문서고(文書庫)에 보존, 관리하였다. 영구보존기록의 경우 춘추관 및 의정부와 같은 경사(京司)의 문서고와 사고(史庫) 등으로 나누어 보관하였다.⁵⁵⁾

승정원일기의 경우 중요 등록으로 누상고(樓上庫)에 비치하여 열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수본일기 역시 개수가 완료된 다음 누상고⁵⁶⁾나 승정원 내 문서고에 장치하였을 것이다. 영조 23년(1747) 11월에 완료한 『개수일기등록』은 2건 만들어 승정원 1건, 춘추관으로 보내 강화사고에 보관하게끔 했다. 이렇듯 조선에서는 주요 기록물에 대한 장소별 분산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⁷⁾

54)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11月.

55) 이형중, 2012, 위의 논문, p.68~70.

56) 『동궐도』에 따르면 누상고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다. 궁궐의 행각에는 이층에 ‘樓’를 두고 있는데 이로 누상고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승정원 권역의 행각은 ‘庫’의 구조인데 동월랑과 등을 맞대고 있는 ‘庫’가 누상고일 것으로 생각되며 『동궐도』에는 이층을 오르기 위한 사다리가 있다.(조계영, 2016, 위의 논문, p.48~49)

57) 이형중, 2012, 위의 논문, p.68~70.

제 3 장 『개수본일기』의 기록학적 특징 분석

이 장에서는 인조대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를 형태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두 일기의 작성 형태를 살펴보고, 개수일기범례를 바탕으로 두 일기의 수록된 문서들의 유형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수록된 기사들의 양상을 『전율통보』의 문서식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절 개수본일기의 형식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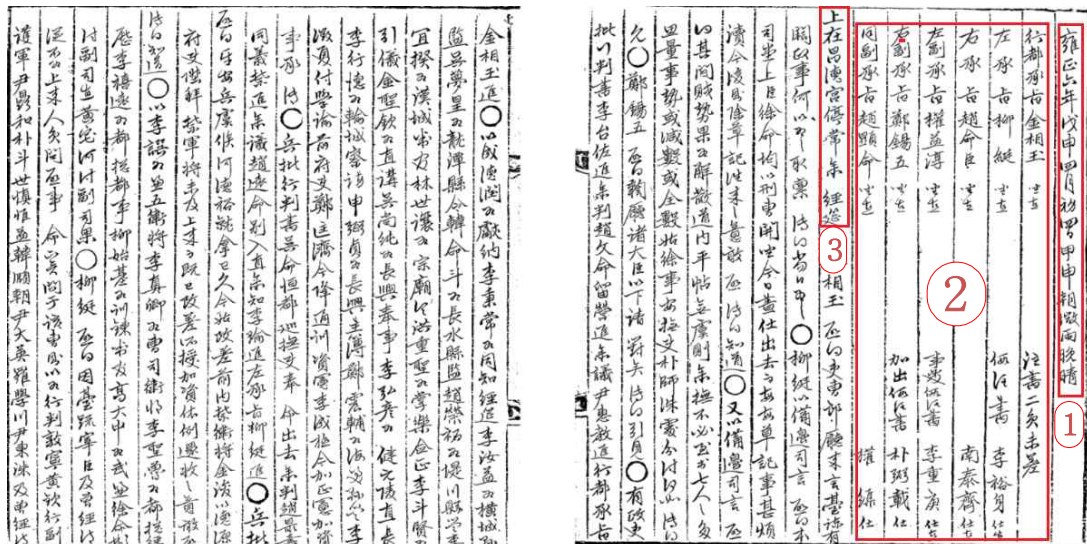
1. 형태 비교

아래 <그림1>은 인조대 개수본일기의 모습으로 ①는 간지, 날짜, 날씨가 작성되어있고, ②에는 승지와 주서의 좌목, ③에는 왕의 동정, 경연상 참 여부, 약방입진이 기록되어있다. 이어서 각종 출납문서와 언동기록이 기재되어있다.



<그림1>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4월 1일⁵⁸⁾

<그림2>는 영조 시대 원본의 모습으로 인조 개수본과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①의 경우 간지, 날짜, 날씨를 ②는 승지·주서의 좌목, ③은 왕의 동정, 경연상참여부, 약방입진을 작성하였고, 그 뒤로는 해당일의 출납문서와 국왕과 신하의 언동이 기록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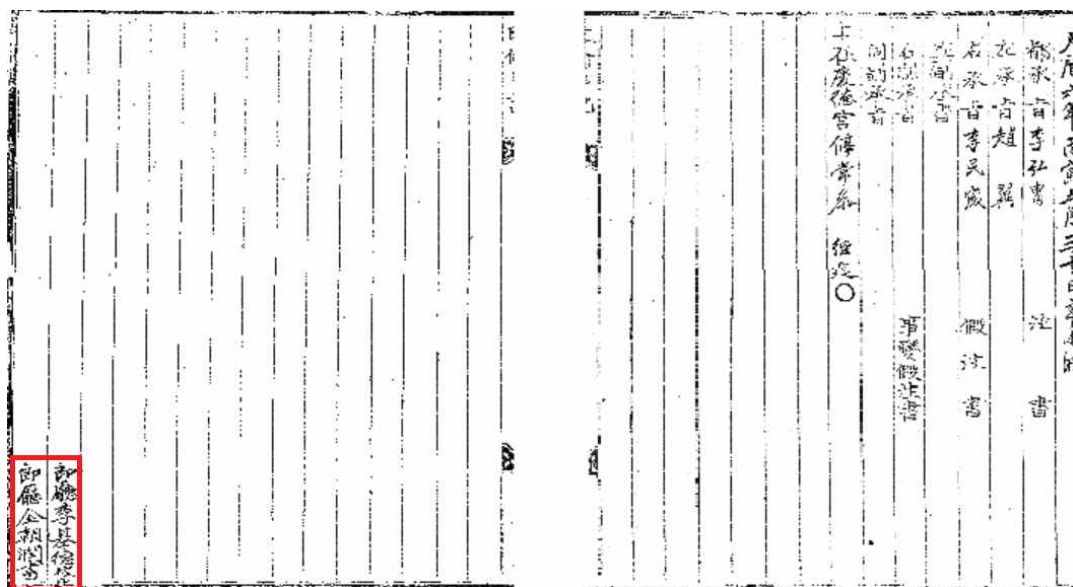


<그림2>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4월 4일 59

위의 <그림1>, <그림2>를 비교해 보면 두 일기의 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3>에는 기사의 말미에 일기청 관원의 이름이 기재되어있

- 58) 규장각원본이미지(<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 최종검색일: 2018.10.22) 날짜: 天啓五年乙丑四月初一日戊寅, 날씨: 晴, 승지·주서 좌목: 都承旨 鄭經世, 左承旨 鄭廣成, 右承旨 全湜, 左副承旨 李聖求, 右副承旨 李榮, 同副承旨 徐景雨, 注書 金霽 一員未差, 假注書 李後陽, 事變假注書 吳搏, 修正假注書 柳景緝, 왕의 동정 및 경연상참 여부: 王在慶德宮 常參經筵.
- 59) 규장각원본이미지(<http://kyudb.snu.ac.kr> 최종검색일: 2019.04.26) 날짜: 雍正四年戊申四月甲申, 날씨: 朝微雨晚晴, 승지·주서 좌목: 行都承旨 金相玉 坐直, 左承旨 柳縝 坐直, 右承旨 趙命臣 坐直, 左副承旨 權益淳 坐直, 右副承旨 鄭錫五 坐直, 同副承旨 趙顯命 坐直, 注書 二員未差, 假注書 李裕身 仕直南泰齊 仕直, 事變假注書 李重庚 仕直, 加出假注書 朴弼載 仕權縑 仕, 국왕의 동정 및 경연상참여부: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조대일기의 경우 입직한 주서들이 개별로 일기를 작성하여 이를 나중에 책자로 묶은 반면에 개수본일기의 경우 일기청 낭청이 일기를 작성하였다.



<그림3> 승정원일기 인조 4년 5월 30일⁶⁰⁾

<그림3> 박스에 ‘郎廳 李基德 校正/ 郎廳 金朝潤 書’로 기재되어있다. 교정은 낭청 이기덕이 하였고, 낭청 김조윤이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 달 말일 일기의 끝에 작업자의 이름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다.⁶¹⁾ 실명을 기록함으로써 개수 작업의 정확성을 보이고 자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인조대일기와 영조대일기는 크게 간지, 날짜, 날씨를 기록한 부분, 출납문서 부분, 언동기록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은 수록기사양상 부분에서 자세하게 서술한다.

60) 규장각원본이미지. (<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 최종 검색일: 2018.10.22)

61) 『日記廳謄錄』, 英祖 23年(1747) 6月 初 9日, 日記廳校正節目: 日記每一年未, 書以郎廳某校正.

2. 범례 비교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의 범례 비교에 앞서 승정원일기 편찬 범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승정원일기의 편찬 범례는 현재 전해져 오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해선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원래부터 없었던 경우와 소실되었을 경우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승정원의 고유 업무임이 분명한데, 승정원 관련 수교를 모아 만든 『정원고사(政院古事)』, 승정원 업무에 대한 사례를 담은 『은대편고(銀臺便攷)』, 승정원의 업무를 육전 체제로 나누어 편찬한 『은대조례(銀臺條例)』⁶²⁾에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승정원일기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범례도 함께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다른 기록에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범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행해져온 관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범례와 같은 규칙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승정원일기 편찬과 관련된 범례는 존재하지 않다가 개수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개수 작업은 국가 대공역으로 기존의 승정원일기를 작성했던 관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관원들이 개수본일기를 만드는데 추가로 투입되었다. 이들이 개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매뉴얼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영조대 승정원일기에서 관계적 작성원칙을 뽑아내어 개수일기범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범례를 바탕으로 개수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수일기범례는 기록의 생산과 관리 업무를 위한 표준지침이자 업무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론 개수범례에 따라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록된 문서의 유형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범례에는 있지만 일기에 수록되지 않은 것과 범례에는 없지만 일기에 수록된 기사의 유형들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62) 한국고전번역원, 2013, 위의 책, p. 272.

아래는 일기청등록에 수록된 개수일기범례이다.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개수일기범례⁶³⁾

- ① 거조(舉條)⁶⁴⁾는 모두 기록한다.
- ② 각사(各司)의 초기(草記)는 후일에 참고 될 만한 것을 기록한다.
- ③ 대간(臺諫)의 계사(啓辭)는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모두 기록한다..
- ④ 상소(上疏), 입계(入啓)한 것은 대개를 기록한다.
- ⑤ 입계된 정사(呈辭)를 쓰고 세 번째 정사는 체차되었을 경우만 쓴다.
- ⑥ 정사(政事)는 정사가 있었다(有政)라고 쓰되 낙점(落點)에 관한 내용만 쓴다.
- ⑦ 각전(各殿)에 대한 약방(藥房), 조정(朝廷), 정원(定員), 옥당(玉堂)의 문안한 일은 쓴다.
- ⑧ 왕의 전교(傳敎)는 모두 쓴다.
- ⑨ 정사에 대한 여쭈운 내용은 쓴다.
- ⑩ 사은(謝恩), 하직(下職) 등을 쓴다.
- ⑪ 월초(月初) 대간의 계사가 전에 아뢴 계사인지를 새로 아뢴 계사인지를 모르면 지난달을 살펴보고서 쓴다.
- ⑫ 관상감(觀象監)에서 보고하는 재이(災異)에 관한 내용은 해당 날짜의 일기에

63) 『日記廳謄錄』, ①舉條則勿論緊歇 入錄 而必考日字 錄於當日 前月舉條之出此月者 則付標以送於前月所書之員 ②各司草記 可爲後日參考者 入錄 ③臺諫啓辭 勿論緊歇 入錄 ④上疏入啓者 則書大槩 ⑤入啓呈辭 書之 三度呈辭 只書遞差 ⑥政事書以有政 只書落點 ⑦各殿 藥房朝廷政院玉堂問安 書之 ⑧傳敎 則並書之 ⑨政事取稟 書之 ⑩謝恩下直 書之 ⑪月初臺諫啓辭 未知爲前啓新啓 則考前月而書之 前啓則只書請以下 改措語 則書之 新啓則盡書之 ⑫觀象監災異 書於當日 ⑬朝報中 移御日字 則抄出別錄揭壁次 ⑭各道書目 書之, 御史回啓 書之, 吏兵曹歲抄 書之, 敍用書之 ⑮禁府啓目中 可備後考者 書之 ⑯燼餘日記 移謄.

64) 거조(舉條)란 거행조건(舉行條件)이라고도 하며 연석에서 논의된 내용 중 거행 사항이 결정되면 승정원에서 이를 정서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계해지는 왕명문서 체계를 말한다. 거조는 왕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교(傳敎), 유서(諭書), 유지(諭旨), 교지(敎旨), 비망기(備忘記), 운음(綸音) 등을 말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의 문서들을 거조에 해당하는 문서로 전제하여 각 일기에 범례 ①번을 적용시켰다. (이근호, 2016, 「조선 후기 舉行條件의 制定과 承政院의 역할」, 『규장각』4, p.76)

쓴다.

- ⑬ 조보(朝報) 가운데 이어(移御)한 날짜는 뽑아내어 별도로 기록하여 벽에 게시해 둔다.
- ⑭ 각도 서목(書目)과 어사회계(御使回啓), 이·병조세초(吏·兵曹歲抄), 서용(敍用) 등을 쓴다.
- ⑮ 금부(禁府) 계목(啓目) 중 후일에 참고 될 만한 것은 쓴다.
- ⑯ 신여일기(燼餘日記)는 옮겨 베긴다.

위의 개수일기범례는 일기청등록에 수록된 조항으로, 16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여일기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된 것이다. 즉 영조대일기에 기록된 기사들을 보고 승정원일기의 작성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개수일기범례의 조항들을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에 각각 적용해 보면 두 일기 수록된 기사의 유형과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조 1년(1623)~27년(1649)까지 매해 가장 많은 양의 기사가 수록된 한 달을 선정하여 범례를 적용해 보았다.

<표3> 개수본일기 인조대 범례 적용

범례 번호	유형	기사 수록 일자	수록 여부
①	거조	1633.11.10	○
②	각사 초기	1633.8.9	○
③	대간 계사	1633.11.10	○
④	입계 장소	1633.11.10	○
⑤	입계 정사(呈辭)	1641.11.20	○
⑥	낙점된 정사(政事)	1625.11.05	○
⑦	각전 약방 문안	1633.11.10	○
⑧	전교	1633.11.10	○
⑨	정사(政事) 여쭙	1623.08.05	○
⑩	사은, 하직	1637.10.17 1625.02.11	○
⑪	작성원칙	-	-
⑫	재이	1633.10.06	○

⑬	작성 원칙	-	-
⑭	각도 서목, 어사회계, 세초, 서용	1623.04.29	○
⑮	금부 계목	1623.08.17	○
⑯	신여일기	1633.11.10	○

<표3> 범례 ⑪과 ⑬은 작성 원칙으로 이를 제외하고 14가지 사항이 모두 수록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왕의 업무는 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범례에는 없는 사항들이 일기에 수록되어있다. 이러한 유형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인조대 개수본일기 중 범례에 없는 유형

일련번호	유형	수록 일자
①	관원 현황	1625.03.04
②	입시	1623.08.01
③	별시(別試) 참석 등 명단 관련	1623.08.10/20 1627.10.01
④	책례(冊禮) 등의 시각 관련	1623.08.15 1627.10.09
⑤	형문/처형/승복 관련	1623.08.27 1627.10.06/7
⑥	게첩(揭帖)/예첩(例帖)	1629.07.13 1626.08.30
⑦	회답(回答)	1631.06.04
⑧	망/망통(望筒)	1639.09.22
⑨	조본(照本)	1641.11.12/17
⑩	정배(定配)	1643.04.21
⑪	정계(停啓)	1645.04.06
⑫	차하(差下)	1649.03.03
⑬	수효(數爻)	1649.03.26
⑭	~나갔다/~들어왔다: 신하의 이동 관련	1627.10.13/16/24 1631.06.21
⑮	접견(接見)	1635.06.12
⑯	피혐(避嫌)	1643.09.01

실제 수록된 기사를 보면, <표4> ①은 “이비(吏批)에, 겸판서 김류(金瑬)는 나왔고, 참판 최명길(崔鳴吉)은 침 맞고 뜸 뜨기 위해 말미를 받았고, 참의 이명한(李明漢)은 정사(呈辭)하였고, 행 도승지 정경세는 나왔다. 병비(兵批)에, 판서 서성(徐渚)은 나왔고,…”의 형태로 기재되어있다.

②의 경우, “조강에 우상(右相), 지사(知事) 이귀(李貴), 특진관(特進官) 이시발(李時發)·이흥립(李興立), 승지 윤안국(尹安國), 옥당(玉堂)의 정경세(鄭經世)·이식(李植), 양사(兩司)의 이상급(李尙倖)·권확(權獲)이 입시하였다.”로 확인 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왕자 가례 참석 명단, 명정전(明政殿)에서 시행하는 별시 전시의 독권관(讀券官) 명단 등 이름을 작성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④시각과 관련된 기사는 ‘중전 책례에 전좌(殿坐)할 때의 삼엄(三嚴)은 진초(辰初)로 하라.’로 기재되어있다.

⑤의 형문, 처형, 죄인을 잡아옴에 관련한 내용, 병사를 거느림 등 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도 수록되어있다. 특히 ‘~보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서목을 보고하거나, 망궐례 날짜, 군사 관련 보고, 예조의 가례, 책빈 날짜 보고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⑥게첩⁶⁵⁾이 수록된 기사의 경우 인조 7년(1629) 7월 13일 기사에 왜노의 침범이 염려스럽다는 부총 홍조(副摠興祚)의 게첩이 수록되어있다.

⑦~ ⑭의 경우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5> 인조 개수본일기 중 범례에 없는 기사 본문

본문	기사 본문
⑦회답(回答)	비변사의 계사와 관련하여 회답하기를, “위정철(魏廷詰)을 나수(拿囚)하는 일에 대해 승전을 받들라.” 하였다.
⑧망통(望筒)	또 회시 시관의 망통으로 아뢰기를, “시관의 망

65) 게첩(揭帖)이란 어떠한 일에 관한 내용을 적어서 보고하는 공문서이다. (한국고전용어사전)

	과 양사의 단자는 으레 구례입니다. 그런데 사간원의 단자는 여러 번 가져오도록 하리(下吏)를 재촉하였는데 아직까지 써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관의 망과 사헌부의 단자를 먼저 입계합니다. 사간원의 단자는 써서 바치기를 기다려 입계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였다.
⑨조본(照本)	사헌부의 조본(照本)에, “군기시 정 이지굉(李志宏)과 선공감 침정 유적(柳穉) 등이 이조의 순검(巡檢) 때에 받은 죄는 각기 태(笞) 40에 해당하며 사죄(私罪)이니,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라 파출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공으로 1등을 감하라고 계하하였다.
⑩정배(定配)	의금부가, 이영호(李英豪)는 흥양(興陽)에, 정한기(鄭漢驥)는 여산(礪山)에, 권철건(權鐵堅)은 정의(旌義)에 정배하였다.
⑪정계(停啓)	사헌부와 사간원이 전에 아뢴 일은 국기를 위해 재계하므로 임시로 정계하였다.
⑫차하(差下)	가주서 이만길(李晩吉)이 병이 있어 그 대신에 이진하(李震夏)를 차하하였다.
⑬수효(數爻)	문과 전시에서 거둔 시권(試券)의 수가 276장이었다.
⑭~나갔다/~들어왔다: 신하의 이동 관련	회답관 박난영이 나갔다.
⑮접견(接見)	진시(辰時)에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유격 풍보국(豐報國)을 접견하였다. 유격이 계상(階上)에 오르니 상이 서로 읊하고 들어가 전상(殿上)에 이르렀다. 유격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표류하다가 귀국에 도착하여 외람되이 전하의 은전을 입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흠명을 받들고 왔으니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상(皇上)께서는 만안(萬安)하시오?” 하자, 유격이 만안하다고 대답하였다.
①⑥ 피혐(避嫌)	대사헌 이식(李植), 장령 김원립(金元立), 지평 이재(李梓)가 피혐한 계사의 대개는 처치(處置)를 잘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렇게 범례에는 없지만 일기에 수록된 기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례의 내용이 모든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조대일기는 범례의 항목들을 어떻게 수록하고 있을까? 영조대일기 역시 범례의 항목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⁶⁾ 또 범례에는 없으나 일기에 수록된 유형으로는 수서(手書) 등이 있다.⁶⁷⁾

영조대일기의 경우 범례에는 없으나 일기에 수록된 문서가 개수본일기에 비해 적어 보이는 이유는 범례 자체가 영조대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개수본일기는 범례의 사항들을 물론 수록했지만, 복구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범례에 없는 사항들을 더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개수본일기는 영조대일기에 비해 기사의 분량은 적으나, 수록된 기사의 유형을 보면 영조대일기와 가깝게 개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66)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1724)~6년(1730)까지 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67) 『承政院日記』 英祖 2年 6月 10日, 手書傳于龜河曰, 噫, 自古君臣, 貴相知心.

既已任用, 則使傍言不能訐, 然後方可做事. 自古帝王, 非不欲信用大臣也, 而易撓於人, 未能固守初志, 此乃待之非誠故也. 予每讀史記, 心嘗慨然者矣. 噫, 今若以嘵嘵之言, 一毫動于心而禮待減, 則初豈擢拔于卿哉? 且卿平日之心, 予已照燭, 則一筭二筭, 譏讓不止, 是豈予之所望於卿者哉? 當今首揆在外, 右揆未出, 而卿又如是引入, 若此而國事奚爲? 且卿之恒日公平之心, 不體予勸懇之意, 一向過嫌, 則非鎖嘵嘵之意. 言念民事, 顧此世道, 中夜無寐, 當食無味, 卿若又以許錫事, 作一嫌端, 則日昨批旨, 已示予意, 予何欺卿哉? 茲以手書, 更攄心曲, 待卿入來, 當有面諭者矣. 且今卿引入, 卽非所患之難強, 乃情勢之故, 而卿其體如渴之至意, 與承宣而偕入.

3. 수록 기사 양상 비교

이 절에서는 두 일기의 수록기사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1) 당일 일시, 날씨, 승지·주서의 좌목, 국왕의 경연·상참 시행 여부⁶⁸⁾
- (2) 승정원 출납 문서 등사(謄寫)⁶⁹⁾
- (3) 국왕·신하의 언동(言動)⁷⁰⁾

승정원일기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매일의 날씨와 담당자가 빠짐없이 기록되었고, 총 288년의 날씨기록이 정리되어있다. 날씨는 晴, 雨, 雪 등으로 기록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午前晴 午後雪’ 등으로 일기의 변화까지 적었다.⁷¹⁾ 개수일기범례에도 “관상감의 재이에 관한 내용은 해당 날짜의 일기에 쓴다.” 라고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날씨의 기재는 승정원 일기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개수본일기와 영조대 일기 기사에 수록된 날씨와 천문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날씨 기록 수록 형태

仁祖 7年 2月 8日	英祖 1年 1月 7日
① 日出時, 日色赤. 夜一更. 流星出天棊星上, 入北方天際, 狀如瓶, 尾長二三尺許, 色白. ⁷²⁾	② 昧爽, 流星出氏〈星〉下, 入南方天際, 狀如鉢, 尾長三四尺許, 色赤, 光照地. ⁷³⁾

68) 명경일, 2014,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승정원일기의 문서 등록 체계」, 『고문서연구』44, p.82.

69) 명경일, 2014, 위의 논문, p.82.

70) 명경일, 2014, 위의 논문, p.82.

71) 정만조, 2003, 위의 논문, p.33.

72) 『承政院日記』 仁祖 7年 2月 8日.

73)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月 7日.

<표6> ①번과 ②은 인조대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에 수록된 재이에 관한 기록이다. 두 기사는 해당 일에 발생한 날씨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경연·상참의 시행여부에 대한 기록은 승지가 그날의 사실을 확인하여 생산한 기록이다.⁷⁴⁾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에는 “上在慶德宮, 停常參·經筵” 등의 형태로 기재되어있다. 이 부분은 서술형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들은 승정원일기에 대부분 등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등재된 문서는 (2)출납문서 파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두 일기의 출납문서 기재순서를 살펴보면, 영조대일기는 대체적으로 약방문안, 각방 승지나 각사의 계사, 계목, 초기, 첩정과 그에 대한 국왕의 전교, 비망기, 교문, 교서, 이·병조의 정주(政注), 상소, 차자와 그에 대한 비답, 전유, 하유, 사은, 숙배, 하직, 출거, 입래 등 임금관련 행사의 순으로 기록되어있다.⁷⁵⁾ 인조대 개수본일기의 경우 상소와 차자 문서가 일기의 말미에 기록되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영조대일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차이를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⁷⁶⁾ 아마 상소와 차자를 특별히 말미에 기록한 이유는 위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등사할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2)출납문서는 크게 전문을 등사한 것과 요약 및 발췌하여 기재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문 등사된 문서에는 전교, 비망기, 교서가 있고 요약 및 발췌한 문서로는 계사, 초기, 서계, 장계, 상소, 단자가 있다. 각각의 문서를 전율통보 문서식에 비교하여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그 형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1 출납문서-전문(全文)을 등사한 문서류

전교(傳敎)는 임금이 내린 지시나 명령으로 승지가 입시하여 이를 받아

74) 명경일, 2014, 위의 논문, p.82.

75) 정만조, 2003, 위의 논문, p.7.

76) 정만조, 2003, 위의 논문, p.7.

적어 반포하는 것이다. 개수범례에도 ‘왕의 전교는 모두 쓴다.’ 라고 되어 있듯이 전교는 전문이 승정원일기에 기재되었다. 영조 1년(1725)부터 2년(1726)까지의 기사를 살펴보면 전교는 아래의 형태로 수록되어있다.

삼천진(三千鎭)에 사는 김류(金瑬) 등 14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통제사의 장계와 관련하여 이중협에게 전교하기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 대해 본도로 하여금 홀전을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⁷⁷⁾

유만중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내린 궁시(弓矢)를 벌등 만호 신광악에게 주어 보내라.” 하였다.⁷⁸⁾

위의 기사는 영조대일기에 수록된 전교 기사로 국왕이 받는 사람에게 ‘~전교하기를’ 로 시작하여 그 뒤 명령한 말을 작성 하였다. 개수본일기 기사에도 ‘전교하기를, “영창대군(永昌大君) 이의(李璘),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능창군(綾昌君) 이진(李埈)… 관직을 회복시키라.” 하였다.’ 로 영조대일기와 동일한 형태로 기재되었다.⁷⁹⁾

즉, 전교의 경우 국왕이 전교를 받는 사람에게 한 지시나 명령만 작성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전교에 대한 후속조치는 따로 수록하지 않았다. 전지에 대해 전교를 내리는 경우, 전지의 전문이 실려 있지 않고 다만 신료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만 전지의 전문이 실려 있는 경우 등 여러 형태로 기록되어있다.⁸⁰⁾

비망기(備忘記)는 사알(司謁)이 임금이 서면으로 내린 지시나 명령을 글로 써서 승정원에 전달한 것이다. 비망기의 내용은 『은대조례(銀臺條例)』에 규정되어있는 “政令中事體自別者及敦諭別諭”에 대해서 내리는 것

77) 『承政院日記』 英祖 3年 4月 3日, 統制使狀啓, 以三千鎭居金瑬等十四名渰死事. 傳于李重協曰, 渰死人等, 令本道恤典舉行.

78)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2月 6日, 傳于柳萬重曰, 今日下弓矢, 伐登萬戶申光岳處給. 送

79) 『承政院日記』 仁祖 1年 3月 15日, 傳曰, 永昌大君璘, 臨海君瑋, 綾昌君埈, 晉陵君泰興[泰慶], 延興府院君金悌男, 縣監金孝男, 復官職.

80) 임천환, 「『승정원일기』 왕명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한국사론』37, p.131.

으로 보통 국왕이 대신이나 산림(山林) 등에게 내리는 지시, 명령 글이다.⁸¹⁾ 예를 들어 영조대일기에는 국왕이 권농에 힘쓰고, 백성들을 동요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비망기 전문이 수록되어있다.⁸²⁾ 개수본일기에는 회계하지 않는 각사는 추고하고 좌기(坐起)의 횟수가 드물 경우 법부(法府)에서 규찰하여 논죄하라는 비망기의 전문이 수록되어있다.⁸³⁾ 아래의 <표7>은 각 일기에 수록된 비망기의 본문이다.

<표7> 비망기 수록 형태

仁祖 3年 11月 18日	英祖 1年 1月 1日
備忘記, 近來邊備之可憂, … 俾無稽滯之患.	以備忘記, 下于鄭錫三曰, … 亦爲下諭.

비망기에 관한 문서식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록에 수록된 비망기

81) 이근호, 2014, 「조선시대 국왕의 비망기 연구」, 『고문서연구』44, p.14.

82)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月 1日, 以備忘記, 下于鄭錫三曰, 噫, 歲色已更, 東作不遠. 蓋農者, 天下之大本, 國以民爲天, 民以食爲天, 可不重歟? 故夫子曰, 足食, 又曰, 道千乘之國, 使民以時. 雖有勸農之教, 不使民以時, 則民何以專意農事乎? 以常年言之, 其不可忽也, 而況年因荐饑, 內無經費之蓄, 外無禦寇之備. 古語云, 國無三年之蓄, 國不爲國, 況其一年者耶? 將何以穀, 內救都民之飢, 外活邊氓之饑? 國猶如此, 其蓐屋之顛連, 可勝言哉? 念及于此, 忘餐忘寢. 嗚呼, 民國之本, 本固邦寧, 古人之語, 民無食, 而其能爲邦本乎? 咨爾方伯之臣, 體予至意, 不奪農時, 勸其勤農, 他餘興利撓民等事, 一切嚴禁. 使之安居作農, 而其年考績, 亦以爲重, 則其可無勅勵之道耶? 噫, 予無自修之工, 今之此諭, 未免言教, 究言之來, 則卽出於肝肺也, 須其欽哉. 無孤丁寧之意事, 下諭于八道監司, 而兩都居留之臣處, 亦爲下諭.

83) 『承政院日記』 仁祖 3年 11月 18日, 備忘記, 近來邊備之可憂, 國事之無形, 日甚一日, 雖小官奔走於卯酉, 大官經營於晨暮, 猶恐不給, 而備局以下諸司, 開坐甚罕, 宴安是尙, 紀綱日頽, 舊規亦墜, 良可寒心. 以回啓一事言之, 時急之事, 亦經旬望而後, 或停當, 或遷就於外方, 每致後時之患. 政院, 居出納之地, 理宜糾檢, 而愒視度日, 任其遷延, 古人所謂夙夜在公, 能舉其職, 必不若是也. 今後三日內, 未及回啓各司, 政院一一摘發推考, 坐起稀數, 亦令法府, 糾察論罰, 俾無稽滯之患.

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록에 나타난 비망기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備忘記’, ‘下備忘記’ 등과 같이 비망기를 내린 사실을 전하였다. 둘째, ‘上以備忘記傳曰’, ‘以備忘記曰’, ‘下備忘記曰’, ‘備忘記曰’으로 ‘上’, ‘傳曰’을 기록하였다. 셋째, 특정 관원이나 관서 등에 명령할 때 ‘以備忘記命…等曰’으로 기록하였다. 넷째, 상소나 차자에 대한 답에 대해서 ‘上備忘記答曰’이라고 작성하였다. 다섯째, 지방관에게 하유하는 경우에는 ‘上以備忘記諭…司曰’으로 작성하였다.⁸⁴⁾

이러한 5가지 유형을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에 적용시켜보면 두 일기에 수록된 비망기는 기두와 본문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두어는 ‘備忘記’ 또는 ‘以備忘記’로 시작하고 이어서 본문의 내용이 이어진다. 결어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두 일기는 기두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비망기 전문을 등사하였기 때문에 본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서(敎書)는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발급하는 문서이다.⁸⁵⁾ 관찰사, 절도사 등의 관직을 제수(除授)할 때, 종묘(宗廟)·문묘(文廟) 배향(配享) 시, 신하를 추증(追贈)할 시, 신하를 봉조하(奉朝賀)로 삼을 시, 신하에게 토지나 노비를 하사(下賜)할 시, 즉위(卽位)할 시, 세자·세자빈 책봉(冊封)할 때에 국왕이 내리는 문서이다.⁸⁶⁾ 일반적으로 문서의 시면(始面)에 ‘敎’자(字)와 ‘書’자(字) 사이에 수취자가 기재된 문서를 교서라고 하였다. 시면은 교서의 종류의 따라 다르게 기재되었는데, 그 중 본문에서 살펴볼 관례교서의 경우 시면에 ‘王世子冠禮敎書’로 기재되어있다. 교서의 본문은 기두어인 ‘王若曰’과 결어인 ‘故茲敎示想宜知悉’로 구성되어있다.⁸⁷⁾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9월 9일의 실린 기사는 영조가 효장세자(孝章世子)에게 관례(冠禮)를 설명하며 세자를 칭찬한 내용이 담긴 교서가 수록되어있다. 해당 교서의 원문서는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10 - 장

84) 이근호, 2014, 위의 논문, P.9.

85) 노인환, 2014,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5.

86) 최승희, 1989,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p.64.

87) 노인환, 2014, 위의 논문, p.17~23.

서각편-에 있는 <영조왕세자관례교서(王世子冠禮敎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표8>에서 두 교서의 본문을 비교해보았다.

<표8> 영조대일기 수록 교서와 원문서 비교

英祖 3年 9月 9日	교서 원문서
王世子冠禮敎書, 王若曰, 敎王世子吉日元服, 率由舊章, … 故茲敎示, 想宜知悉, 領中樞府事李光佐製進. ⁸⁸⁾	王世子冠禮敎書, 王若曰, 敎王世子緯吉日元服 率由舊章 … 故茲敎示 想宜知悉 雍正五年九月初九日. ⁸⁹⁾

<표8> 영조대일기에 수록된 교서의 구조를 보면, 시면 부분에는 ‘王世子冠禮敎書’를 작성하였다. 기두어로는 ‘王若曰’이 기재되어있으며 결어는 ‘故茲敎示, 想宜知悉’으로 기록하였다.

왕세자관례교서의 시면 부분에는 ‘王世子冠禮敎書’, 기두어로는 ‘王若曰’, 결어는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작성되어있다. 결어 다음 행에 발급일자인 ‘雍正五年九月初九日’를 기재하였음을 볼 수 있다.

두 본문은 공통적으로 시면, 기두어, 결어를 기재한 방식이 동일하며, 교서의 내용도 일치한다. 그렇지만 원문서의 발급일자는 영조대일기에 수록되어있지 않다. 영조대일기에는 ‘領中樞府事李光佐製進(영중추부사 이광자가 지어올렸다)’로 원문서와 다르게 작성되어있다. 교서에 기재된 날짜는 일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고 대신 작성자의 이름은 적어야 했으므로 원문서인 교서와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

인조대 개수본일기의 경우, 원문서가 남아있는 교서로는 <인조 16년(1638) 김육(金堉)에게 내린 교서>, <인조 3년(1625) 이중로(李重老)에게 내린 교서>가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교서는 개수본일기에 수록되어있지 않아 비교가 불가하다. 아마 인조대일기에 수록된 교서 문서는 영조대일기 수록 형태를 따랐을 것이다. 즉 원문서의 기두어, 교서의 내용, 결어를 동일하게 작성하였을 것이다. 이를 인조 1년(1623) 3월 14일에

88) 『承政院日記』 英祖 3年 9月 9日.

89) 한국고문서자료관 원문텍스트.(archive.aks.ac.kr, 최종검색일: 2018.12.17)

수록된 교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王若曰, 惟我國家, 列聖相承, 家法最正, 以孝爲理, 重熙累洽之化, 至昭敬王而極矣. …(중략) 故茲敎示, 想宜知悉⁹⁰⁾

위의 교서는 폐정을 개혁하고 사면을 반포하는 내용으로, 기두어(王若曰와) 결어(故茲敎示, 想宜知悉)부분이 영조대일기에 수록된 기사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 계사를 비롯한 발췌 문서류

요약·발췌한 문서에는 계사, 초기, 서계, 장계, 상소, 단자가 있다.

계사(啓辭)는 각 관사에서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로 해당 아문에서 직접 올리는 계사, 도제조가 없는 아문에서 수장이 직접 승정원에 나아가 올리는 계사,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올리는 정청계사(政廳啓辭)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⁹¹⁾ 실제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는 계사는 비제조아문(非提調衙門)의 비아방계사(非兒房啓辭)가 대부분을 차지한다.⁹²⁾

계사의 경우 『전율통보(典律通補)』, 『백헌총요(百憲摠要)』에서 문서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은대편고(銀臺便攷)』에 규정된 계사식이 있다.⁹³⁾ 계사의 형식은 서두, 본문, 말미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두는 계사를 올린 사람의 성명, 본문은 문서의 내용, 말미는 계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90) 『承政院日記』 仁祖 1年 3月 14日.

91) 한국고전번역원, 2013, 위의 책, p.211.

92) 이강우, 2010, 「啓辭에 대한 考察-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37, p.140.

93) 『銀臺便攷』 書規: 王世子臣諱率百官, 庭請啓曰, 云云, 末端或亟賜允從焉, 或以荅, 羣情焉, 或以光聖德焉, 或以荅顯祝之至情焉. 書式: 領議政臣某領府事臣某等, 只書時原任大臣姓名. 變百官, 庭請, 啓曰, 達曰云云. 以二折次, 啓紙, 注書書之, 字樣同院議啓辭. 末端或臣民幸甚, 或不勝顯祝, 或千萬血祝, 或勉循舉國, 同情之請焉.(이강우, 2010, 위의 논문, p.133~134)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계사의 형식은 첫째, 초기와 달리 입계한 승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있지 않다. 둘째, 계사를 올리는 주체가 관부이거나 관원 이름으로 되어있다. 셋째, 계사가 올리는 주체가 직접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있다. 넷째, 국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면 본문 말미에 ‘之意敢啓’, 청하는 내용이면 ‘請’이나 ‘何如’, 묻는 내용이면 ‘何以爲之’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섯째, 계사에 대한 임금의 처분은 전교, 하교, 비답으로 기록되어있다.⁹⁴⁾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에는 어떠한 형태로 수록되었는지 아래의 <표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9> 계사 수록 형태

형식	문서식	인조대 개수본일기	영조대 일기
起頭語	성명/관사의 명칭+啓曰	예) 政院啓曰, 又以禮曹言啓曰,	
結語	之意敢啓 +傳曰	… 牌招肅拜參鞠之意, 敢啓. 傳曰, 依啓. ⁹⁵⁾	政院啓辭, … 還下該曹 之意, 敢啓. 傳曰, 知 道. ⁹⁶⁾
	請/何如	持平黃紐啓曰, … 請命 遞斥臣職. 答曰, 勿 辭. ⁹⁷⁾	俞命凝, 以賑恤廳言啓曰, … 勿爲給代, 何如 傳曰, 允. ⁹⁸⁾
		義禁府啓曰, … 依前啓 辭施行, 何如 答曰, 不 允. ⁹⁹⁾	
	何以爲之 +傳曰	吳百齡, 因吏曹啓辭, 管 參將接伴官卞三近, 催 促發送事, 命下矣. … 未穩, 何以爲之 傳曰, 勿爲發送. ¹⁰⁰⁾	柳綏啓曰, … 今番則何 以爲之 敢稟. 傳曰, 今亦 停止, 可也. ¹⁰¹⁾

94) 이강우, 2010, 위의 논문, p.139.

95) 『承政院日記』仁祖 1年 4月 25日.

96) 『承政院日記』英祖 卽位年 9月 1日.

97) 『承政院日記』仁祖 3年 1月 14日.

<표9>를 보면 기두어와 결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두 일기에 나타나는 계사의 기두 부분은 보통 계사를 올린 관인, 관사의 명칭+啓曰 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런 뒤 계사의 내용이 이어지고 결어는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네 가지의 형태로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草記)는 중앙관아에서 정무 상 중대하지 않는 사안을 사실만 간단히 적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관부 문서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¹⁰²⁾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수록된 초기식을 보면 ‘某司[郎廳以提調意] 啓曰 云云何如[云云之意敢] [啓]’이다. 기두어는 ‘某司啓曰’이고, 결어는 ‘何如’ 또는 왕의 비답이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초기를 아문에 따라 분류하면 도제조아문(都提調衙門) 초기, 제조아문(提調衙門) 초기, 비제조아문(非提調衙門) 초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비제조아문 초기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¹⁰³⁾

초기의 문서형식은 서두에는 관부의 이름을 작성하거나 관부 수장의 직명으로 작성되어있다. 본문은 초기의 내용에 따라 보고, 요청, 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말단에는 연월일과 답인이 기록되어있지 않다.¹⁰⁴⁾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초기의 형태는 첫째, 서두에 초기를 입계한 승지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때 동일 승지가 다른 문서를 입계하였을 시 ‘又’자를 기록하였다. 둘째, 초기를 올린 주체의 말을 승지가 아뢰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말미에는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일 경우 ‘之意敢啓’, 청하는 내용이면 ‘請’이나 ‘何如’, 묻는 내용이면 ‘何以爲之’등으로 마무리하였고, 임금의 처분은 ‘傳曰’로 전교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⁰⁵⁾

98) 『承政院日記』英祖 卽位年 9月 30日.

99) 『承政院日記』仁祖 1年 5月 6日.

100) 『承政院日記』仁祖 1年 4月 8日.

101) 『承政院日記』英祖 卽位年 10月 3日.

102) 최승희, 1989, 위의 책, p.153.

103) 이강욱, 2010,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34, p.308.

104) 이강욱, 2010, 위의 논문, p.319~320.

105) 이강욱, 2010, 위의 논문, p.322~323.

인조대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에 수록된 초기의 모습은 <표10>과 같다.

<표10> 초기 수록 형태

仁祖 8年 3月 9日, 7年 2月 4日,	英祖 5年 3月 21日
1) 春坊草記, 本院下番四員內, 兼司書崔惠吉, 本曹呈旬, … 傳曰, 依啓. ¹⁰⁶⁾	又以備邊司言啓曰, … 何如 傳曰, 允. ¹⁰⁸⁾
2) 答司僕寺草記曰, 啓辭似當, 依此爲之. …” ¹⁰⁷⁾	

전율통보 문서식과 앞에 서술한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초기 문서의 형태를 종합하여 <표10>에 적용해 보면 아래의 <표11>로 정리할 수 있다.

<표11> 초기문서의 기두어와 결어

형식	초기식	기사 적용	
起頭語	某司啓曰	仁祖 8年 3月 9日	英祖 5年 3月 21日
		春坊草記	又以備邊司言啓曰
結語	何如/請/之意 敢啓/何以爲之 /批答: 傳曰	傳曰, 依啓	何如 傳曰, 允
踏印	X	X	X

일단 초기의 경우 답인은 따로 하지 않았으므로 두 일기에도 답인(踏印)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조대 개수본일기 초기를 보면 ‘春坊草記’로 시작해서 ‘傳曰, 依啓’로 끝났고, 영조대일기 경우 ‘又以備邊司言啓曰’로

106) 『承政院日記』 仁祖 8年 3月 9日.
107) 『承政院日記』 仁祖 7年 2月 4日.
108) 『承政院日記』 英祖 5年 3月 21日.

시작하여 ‘何如, 傳曰, 允’로 마무리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두 일기 모두 초기를 올린 주체의 말을 아뢰는 형식으로 기두가 작성되었다. 결어는 문서식에 따라 ‘何如’, 왕의 비답을 전교의 형식으로 기재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서계(書啓)는 암행어사와 복명관의 복명서(復命書)를 서계라 한다.¹⁰⁹⁾ 임무를 마친 신하가 서울로 돌아와 임금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 서계를 사용하였다. 서계를 올릴 때 별단(別單)도 함께 올렸다. 승정원일기에는 전유(傳諭)¹¹⁰⁾와 관련된 서계가 많이 보인다.¹¹¹⁾

서계에 관한 문서식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두 일기에 수록된 세계문서의 형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12> 서계 수록 형태

仁祖 1年 3月 19日	英祖 卽位年 9月 1日
注書崔夢亮書啓, … 故惶恐敢啓. ¹¹²⁾	假注書李重震書啓, … 敢啓. 傳曰, 知道. ¹¹³⁾

<표12>에 의하면 서계의 수록 형태는 기두, 본문, 결어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일기의 기두에는 ‘서계를 올린 사람의 이름+書啓’라고 표시하였다. 그 이후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결어에는 ‘敢啓’라고 작성하였고, 왕의 답변이 존재하거나 없는 경우로 기록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장계(狀啓)는 관찰사·병사·수사 등 지방 관직이 제수된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전율통보에 수록된 장계식(狀啓式)은 ‘具

109) 최승희, 위의 책, p.169.

110) 전유(傳諭)란 대신이나 산림 등에게 신하를 보내 임금의 글을 전하는 것이다.

111) 전유한 결과를 보고하는 기사관 이수익(李壽益)의 서계가 영조 즉위년 9월 1일에 수록되어있다. 외에도 9월 일 영의정 최규서(崔奎瑞)에게 전유한 결과를 보고하는 유수(柳綏)의 서계 등 전유한 결과를 보고하는 서계가 수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한국고전번역원, 위의 책, p. 220)

112) 『承政院日記』 仁祖 1年 3月 19日.

113)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 9月 1日.

銜臣姓署名 本事云云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敎是事 年號幾年某月某日’이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장계는 전문이 실리지 않고 요약한 형태로 기록되어있다.¹¹⁴⁾ 이를 <표1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표13> 장계 수록 형태

仁祖 5年 4月 22日	英祖 卽位年 12月 20日
平安監司十七日成貼狀啓, 安州戰亡將士中表表死節者, … 其中死節者必多, 而不得詳知事. 以上座目外竝內下日記. ¹¹⁵⁾	假注書鄭道亨狀啓, 臣承命馳往于廣州鶴灘村議政府右議政趙泰億所住處, 傳宣聖批 … 緣由馳啓.踏啓字. ¹¹⁶⁾

전율통보 장계식에 적용하여 두 일기의 장계문서가 어떻게 기재 되었는지 기두어와 결어, 연호 부분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14> 장계문서의 기두어와 결어

형식	장계식	기사 적용	
起頭語	具銜臣姓署名	仁祖 5年 4月 22日	英祖 卽位年 12月 20日
		平安監司十七日成貼狀啓	假注書鄭道亨狀啓
結語	詮次善啓向敎是事	X	X
年號	年號幾年某月某日	X	X

기두어 ‘具銜臣姓署名’ 부분을 개수본일기의 경우 ‘平安監司十七日成貼狀啓,’ 영조대일기의 경우 ‘假注書鄭道亨狀啓,’로 작성하였다. 장계를 올린 사람의 ‘이름+狀啓’로 시작하여, 결어와 연호의 서식은 생략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을 축약하여 수록하였다.

114) 한국고전번역원, 위의 책, p. 224.

115) 『承政院日記』 仁祖 5年 4月 22日.

116)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 12月 20日.

이로 보아 두 일기에 수록된 장계의 기두어 기재 방식은 동일하며, 연호부분은 두 일기 모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상소(上疏)는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건의, 청원, 진청 등의 내용이다. 전율통보에 수록된 상소식은 ‘某銜姓名誠惶誠恐頓道謹百拜 上言于 尊號主上殿下伏以 無任屏營祈懇之至謹昧死以 聞 年號幾年某月某日 單銜姓署名.’ 이다.

상소는 차자(笱子)와 함께 영조대일기 기사 중 많은 양이 기록되어있다. 다음은 각각의 일기에 수록된 상소의 본문이다.

<표15> 상소 수록 형태

仁祖 1年 3月 17日	英祖 卽位年 10月 27日
幼學潘錫命·金聲宇·鄭瓚·金國輔等疏曰, 伏以, 臣等聞春秋之義, 見無禮於其君者, 誅之如鷹鷂之逐鳥雀, 見有禮於其君者, 事之如孝子之養父母, 苟或赦大惡而不治, 棄嘉行而不旌, 無以示勸懲之方也. ...” ¹¹⁷⁾	李玄輔疏曰, 伏以臣之情迹, 有必遞之義, 無可出之勢, 鎮日尋單, 昨始入啓, 意謂庶蒙恩遞, 粗安賤分, 而不料還給之命, 遽出格外, 臣誠惶惑憫慙, 實無置身之所. ...” ¹¹⁸⁾

<표16> 상소문서의 기두어와 결어

형식	상소식	기사 적용	
起頭語	某銜姓名誠惶誠恐頓道謹百拜上言于尊號主上殿下伏以	仁祖 1年 3月 17日	英祖 卽位年 10月 27日
		幼學潘錫命·金聲宇·鄭瓚·金國輔等疏曰, 伏以	李玄輔疏曰, 伏以臣之情迹
結語	無任屏營祈懇之至謹昧死以聞	X	X
年號	年號幾年某月某日 單	X	X

117) 『承政院日記』 仁祖 1年 3月 17日.

118)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 10月 27日.

	銜姓署名		
--	------	--	--

상소식에 적용해보면 두 일기 본문의 기두어는 ‘이름+疏曰’로 시작하여 ‘伏以’을 작성함으로 문서를 기재하였다. 기두어의 ‘具(某)銜姓名’을 제외하고 ‘誠惶誠恐頓道謹百拜上言于尊號主上殿下’은 생략되었다. 그 뒤로 상소의 내용이 이어지고 비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두 일기의 수록된 상소의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단자(單字)는 인명이나 물명 등을 열거하여 기록한 문서로 승정원일기에는 망단자(望單子), 복상단자(卜相單子), 시호단자(諡號單子), 진헌단자(進獻單子), 좌목단자(座目單子) 등이 보인다. 단자의 경우 전문이 실린 경우는 없고 단자의 이름이나 내용만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¹¹⁹⁾

<표17> 단자 수록 형태

仁祖 3年 2月 3日, 3年 7月 26日	英祖 5年 3月 21日
1)謹具朱漆篋絲茶盒一對, 銀鑲紫檀書箱一架, 鳳椀二十箇, 冰盤二箇, 鑲是茶鍾二十箇, 青花酒鍾四十箇, 奉申敬, 侍生毛文龍頓首. ¹²⁰⁾ 2)號牌廳郎廳九, 嚴惺·金時讓·崔有海·李景容·權濤·李重吉·楊萬古·沈宗直·權頤吉. 啓. 堂上, 李廷龜·張晚·李曙·沈悅·徐渚·金自黈·崔鳴吉. 啓. ¹²¹⁾	1)傳于權益淳曰, 吏曹參判前望單子入之. ¹²²⁾

위의 수록된 단자의 경우 해당 단자식에 적용하여 비교하기보다 <표 17> 의 본문을 서로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표17> 개수본 일기를 보면 단자의 내용이 요약되어 실려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119) 『承政院日記』, 仁祖 3年 2月 3日, 모문룡이 올린 단자가 수록되어 있다.

120) 『承政院日記』, 仁祖 3年 2月 3日.

121) 『承政院日記』, 仁祖 3年 7月 26日.

122) 『承政院日記』, 英祖 5年 3月 21日.

한 영조대일기의 경우 단자의 내용은 거의 기재하지 않고 이름을 위주로 기사가 수록되었다.

이상으로 (2)출납문서 수록 기사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 (3)의 수록 양상을 보도록 하겠다. (3)은 국왕과 신하의 언동 기록으로, 대화기록, 입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영조 1년(1725) 2월 1일 기사의 말미에서 그 형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오시(午時)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 … 참찬관(參贊官) 윤석래, 시독관(侍讀官) 이기진, 신방, 가주서(假注書) 정도은, 기사관(記事官) 권지, 안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번이 읽으라.” 하니, 신방이 ‘진태건오년(陳泰建午年)’부터 ‘진복강북지지(盡復江北之地)’까지 읽었다. …¹²³⁾

위의 기사를 보면 일자, 시각, 장소, 참석자의 순으로 나열 한 후 행동과 대화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개수본일기에 복구된 (3)국왕의 언동기록의 경우 영조대일기와 같이 일정한 체제에 입각한 편집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경향을 보인다. “…曰, …”, “…所啓, …”와 같이 작성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¹²⁴⁾ 이것은 개수본일기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대화기록과 같이 현장성이 높은 기록을 복구하는 어려움과 수집된 전거자료를 그대로 등사하는 방법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생겼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인조대 개수본일기 중에는 영조대일기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기사가 있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기사는 인조 3년(1625) 6월 13일의 기사이다.

123) 『承政院日記』 英祖 1年 2月 1日, 初一日午時, 上御進修堂. 召對入侍, 參贊官尹錫來, 侍讀官李箕鎭·申昉, 假注書鄭道殷, 記事官權贊·安晟. 李箕鎭讀綱目, 自陳太建四年, 止周主深納之. 上曰, 下番讀之, 申昉讀自陳太建五年, 止盡復江北之地 …(하략).

124) 최재복, 2003, 「승정원일기 대화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한국사론』37, p.183.

체찰사(體察使) 장만(張晩)을 자정전(資政殿)에서 인견(引見)하였다. 승지 조익(趙翼), 기사관 임광(任統), 기사관 정연(鄭沆), 기사관 구봉서(具鳳瑞)가 입시(入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략)”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하략)”¹²⁵⁾

체찰사 장만을 자정전에서 인견하였고 승지 조인, 기사관 임광, 정연, 구봉서가 입시하였다는 내용이다. 영조대일기와 마찬가지로 장소, 참석자의 순으로 나열하여 기재하였다. 다음으론 대화가 이어지는 형식으로 서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장 1절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 비교를 통한 형식상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두 일기 모두 크게 간지·날짜·날씨·좌목·경연상참여부, 출납문서 등사, 국왕·신하의 언동 기록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일기의 형태가 동일하다. 출납문서 부분은 공통적으로 문서별 수록형태가 거의 유사하나 기재순서에서 조금의 차이가 존재한다. 언동 기록 부분은 영조대일기와 유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있다.

범례에 규정된 조항들을 두 일기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범례에 없는 문서가 일기에 수록된 경우도 존재한다. 인조대 개수본일기의 경우 관원 현황, 입시, 별시 등 명단, 책례 등의 시각과 관련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고, 영조대일기에는 수서 등이 수록되어있다.

결론적으로 개수본일기는 영조대일기와 큰 구조는 동일하나 각 구조별 문서의 수록방식과 유형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에 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개수본일기를 영조대일기와 최대한 비슷하게 복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25) 『承政院日記』 仁祖 3年 6月 13日, 引見體察使張晩于資政殿, 入侍, 承旨趙翼, 記事官任統·記事官鄭沆, 記事官具鳳瑞, 上曰, …(중략), 晩曰, …(하략)

제 2 절 전거자료 분석을 통한 개수본일기의 내용적 특징

본 절에서는 전거자료를 기록의 형식별로 일기류, 등록류, 실록으로 분류하여 이를 개수본일기와 내용을 각각 비교하여 개수본일기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기류는 신여일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등록류에는 비변사등록, 여제등록을 선택하여 개수본일기와 비교 하였다. 여제등록은 효종대 일기에 다섯 회 정도 인용되었는데, 인조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실록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일기류: 『燼餘日記』

신여일기란 영조 20년에 발생한 화재 당시 소실을 면하거나 타다가 남은 승정원일기를 가리킨다. 경인년일기 1책과 기해년일기 2책은 화재 당시 대내(大內)에 가 있어 소실을 면하였다. 이를 제외하고는 불에 타다 남은 일기가 있었다.¹²⁶⁾ 신여일기는 개수본일기를 본래의 승정원일기처럼 복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개수 작업이 끝난 뒤에는 신여일기를 세초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온전하지 않은 것은 세초하고 온전한 책 모양의 일기만 모아 승정원에 보관하였다.¹²⁷⁾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신여일기를 확인하는데 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개수본일기에 인용된 신여일기에 관해 추론하는 방향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인조대 개수본일기에 수록된 신여일기의 내용은 주로 전교, 날씨 및 천문기록, 상소, 차자, 계, 관직제수, 국왕과 신하의 논의 사항을 적은 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 외에도 교서, 장계, 서계, 계목, 서목 有政관련, 문답, 비망기, 안부 관련, 인견입시 관련 등이 수록되어있다.

126) 국사편찬위원회, 1970, 『承政院日記』, 도서출판 탐구당. 해제 참고.

127) 『日記廳謄錄』 英祖 22年(1746) 11月 18日.

아래는 인조대 개수본일기에 수록된 본문이며 이를 통해 신여일기의 인용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① 계

인조 12년 3월 23일

鄭世矩啓曰, 大司憲以下出仕事, 命下, 而闕門已閉, 待明朝爲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以上燼餘日記

② 상소, 차자

인조 17년 11월 22일

刑曹判書李敬輿疏曰, 人情莫不畏天而嚴父, 況當玉候違豫中, 螻蟻賤臣, 獨將私懇, 冒瀆宸嚴, 至再至三, 縱恃天地父母之仁, 亦緣危迫之情, 誠有所不得已也. 夫虛受之言, 止於一身, 則人臣之義, 惟當承命奔走, 日後顛躓, 有不可恤, 今臣去就, 實係國體, 命德之器, 濫及匪人則是實失舉, 司臬之長, 輕授不才則終致僨事, 國事至此缺在人, 其在庶僚, 亦宜慎簡, 矧茲卿列, 爲國輕重在焉. 聖明寵擢, 旣在誤恩, 微臣忝竊, 亦歸貪榮, 則負乘致缺臣之災, 貽笑辱國, 奈朝廷何? 此古人所以十辭, 而亦臣所以抵死而哀籲者也, 不然, 臣亦人耳, 豈缺四五字飾自欺之天乎? 伏願聖慈, 俯諒憫縮之惘, 特許遞改, 以延垂死之命, 公私幸甚. 啓下吏曹. 以上出燼餘日記

③ 전교

인조 17년 11월 23일

傳于具鳳瑞曰, 今番使臣入往時, 大君交替事, 使之言及. 以上出燼餘日記

④ 관직제수

인조 4년 1월 26일

吏批, 李廷龜爲兼禮曹判書知經筵事, 金尙容爲同知經筵事世子右副賓客, 姜碩期爲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知製敎兼世子侍講院輔德校書館校理, 沈東龜爲奉列大夫行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 兵批, 李廷龜爲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 金尙容崇祿大夫行龍驤衛副護軍, 李德洞爲崇政大夫行龍驤衛副護軍, 尹知敬爲禦侮將軍行龍驤衛副護軍. 已上燼餘日記

⑤ 날씨 및 천문기록

인조 4년 1월 29일

辰時, 黃雲如疋布, 起自東二字缺 逶迤而過, 傍于南山顛, 指坤方, 長三字缺東南天

際, 移時而減. 未時, 日暈, 已上燼餘日記/郎廳 李基德 校正. 郎廳 金朝潤 書

⑥ 논의

인조 17년 7월 14일

上御崇文堂. 引見大臣·備局堂上. 昇平府院君金瑬, 益寧府院君洪瑞鳳, 領府事李聖求, 領議政崔鳴吉, 左議政申景禎, 工曹判書具宏, 戶曹判書李溟, 兵曹判書李時白, 吏曹判書李景奭, 司直朴潢, 副提學金槃, 司直李明漢, 承旨睦性善, 注書李正英, 事變假注書李齊衡, 記事官李天基·朴長遠入侍. 上曰, 史官入伏房中, 大臣進伏於一行. 上曰, 勅使去後, 欲見卿等以聞意見, 而近得暑症, 未果矣, 今已差歇, 故命招矣. 崔鳴吉曰, 氣候, 今則何如? 上曰, 今則差復矣. 鳴吉曰, 大小臣民, 固已爲慮, 而未知玉候之不安, 今始承教而知之矣. 鳴吉曰, 勅使在館時, 則無暇啓達, 去後群情, 無不憂悶, 而未知何爲而好也? …(중략). 以上出燼餘日記

위의 기사는 신여일기에서 인용하여 작성된 개수본일기 본문이다. 먼저 개수본일기에 수록된 문서의 유형을 보면 신여일기 역시 범례에 따라 기사를 선별하여 인용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전교 같은 경우 전문을 등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개수본일기의 본문과 신여일기의 본문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본래 승정원일기인 만큼 뒤에 언급할 등록류의 기록보다 다양한 문서들이 수록되어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등록류: ① 『備邊司謄錄』

비변사등록 중 현존하는 인조대 기사 연도는 1638, 1641, 1642, 1644~1649년 이다. 각 년도에서 1달치 양의 기록을 추출하여 두 기록을 비교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개수본일기에는 비변사등록의 기사를 매년 1월~12월까지 매달 일기의 기사를 선별·수록하였으며 두 기록의 내용이 동일하다. 간혹 11월까지만 인용한 년도가 있는가 하며(1646), 1월은 제외하고 2월~12월까지 인용한 연도(1648)도 있지만 그 외에는 보통 12달 치의 기사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8> 개수본일기 와 비변사등록의 본문

연월일	개수본일기	비변사등록
1638년 2월1일	備邊司啓曰, 醴川所捕愁里同等, 今已上來, 自本司詳加盤詰, 則祖父阿可諸, 當初出來時, 途多愧兒時率來, 居生於忠州檢丹村, 其父長成, 娶本國女人, 仍生愁里同, 既是我國人物, 亦不復戶, 必是嫌人所告云. 永孫亦稱祖父尼沙道出來, 父李令尼產長, 今年已七十歲, 作爲居士, 周流乞食, 固非己身向化云. 以其所供觀之, 則明非己身出來之類, 姑囚京獄, 更爲明查後處置, 方合事宜. 敢啓. 答曰, 依啓. 備局臚錄	啓曰, 醴泉所捕愁里同等, 今已上來, 自本司詳加盤詰則祖父阿可諸, 當初出來時, 途多塊兒時, 率來居生於忠州檢丹村, 其父長成, 娶本國女人, 仍生愁里同, 既是我國人物, 亦不復戶, 必是嫌人所告云, 永孫亦稱祖父尼沙道出來, 父李令尼產長今, 年已七十歲, 作爲居士, 周流乞食, 固非己身向化云, 以其所供觀之, 則明非己身出來之類, 姑囚京獄, 更爲明查後處置, 方合事宜敢啓, 答曰, 依啓.

위의 <표18>은 개수본일기와 비변사등록의 본문으로 각 년도에서 하나의 기사를 뽑아 예시로 정리하였다. 인조 16년(1638) 2월 1일의 일기와 비변사등록의 본문은 예천에서 체포된 수리동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처리할 것을 청하는 계이다. ‘비변사가 아뢰길, 체포된 수리동 등에게 자세히 캐물은 뒤 대답을 들으니 우선 경옥에 가두어 다시 조사한 뒤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내용이며 두 본문의 내용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1642, 1644~1649년에 수록된 기사도 전문을 등사하였으며 그 내용이 일치하며 <부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8> 외에도 비변사등록은 인조대 개수본일기에 자주 인용되었다. 중요 등록기록이라는 비변사등록이 갖는 기록의 위계와 일지류 형식, 편년체 서술 방식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비변사등록의 기사를 주로 선별하여 일자 순서대로 수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비변사등록의 매년 기사를 적어도 1건씩 인용한 것을 근거로 들 수 있겠다.

비변사등록의 인용은 기본적으로 범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범례 ②에 각사(各司)의 초기(草記)는 후일에 참고 될 만한 것을 기록한다 라

고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비변사의 계를 수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례에서는 전문을 등사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비변사등록은 전문을 등사하는 수록 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본문이 그대로 전제되어있는 점을 통해 두 기록의 내용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조대일기와 비변사등록의 관계는 어떠한가.

영조대일기: 李眞淳, 以備邊司言啓曰, 今此告訃使之行, 行期急迫. 凡係路費, 不可求請於各道, 在前如此之時, 有以大同米, 自京廳出給之例, 而兩西求請, 則去路收合, 京畿·湖西, 則本自京廳, 定式直給, 兩南求請之價, 依前使行時謄錄出給, 以爲措備行資之地, 何如? 傳曰, 允.¹²⁸⁾

비변사등록: 司啓辭, 今此告訃使之行行期急迫, 凡係路費, 不可求請於各道, 在前如此之時, 有以大同米自京廳出給之例, 而兩西求請則去路收合, 京畿·湖西, 則本自京廳定式直給, 兩南求請之價, 依前使行時謄錄出給, 以爲措備行資之地何如, 答曰, 允.¹²⁹⁾

위의 두 기사는 영조 즉위년(1724) 9월 3일자의 기록이다. 고부사의 여행경비에 관한 비변사의 계이다. 영조대일기 역시 비변사등록의 계를 전문 등사하였으며 그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厲祭謄錄』¹³⁰⁾

여제등록은 예조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인조 15년(1637)부터 영조 3년(1727)까지 질병을 막기 위한 제사 혹은 전란(戰亂), 질병이 만연한 후 사망자들을 위한 제사에 관한 기록이다.¹³¹⁾ 등록의 분류 중 ‘질병으로 죽은 사망자에 관련된 제사’라는 주제에 따라 편찬된 ‘단위과제별 관련 공문서 등록’으로 정의 할 수 있다.¹³²⁾ 전거자료로 개수본일기에는 총 5회 인용되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여제등록과 개수본일기의 본문을 비교해

128) 『承政院日記』英祖 卽位年(1724) 9月 3日.

129) 『備邊司謄錄』英祖 卽位年(1724) 9月 3日.

130) 『厲祭謄錄』(奎12880, M/F74-102-19-A).

131) 『厲祭謄錄』규장각해제.

132) 이형중, 2012, 위의 논문, p. 57.

보고자 한다.

<표19> 효종대 개수본일기 와 여제등록 본문 비교

연월일	효종대 개수본일기	여제등록
효종8년(1657) 5월 13일	傳曰, 昨觀賑廳草記, 四郊染病出幕者, 近千云, 極爲可慮. 都下之民, 尤宜軫[賑]恤, 着令醫司, 別定醫官, 以相當藥物, 各別救療, 畢境[竟]多數救活者, 令各衙門啓稟論賞事, 捧甘兩醫司. 已上癘祭臚錄	一 傳曰, 昨觀賑廳草記, 四郊染病出幕者, 近千云, 極爲可慮. 都下之民, 尤宜軫恤, 着令醫司, 別定醫官, 以相當藥物, 各別救療, 畢境多數救活者, 令各衙門啓稟論賞事, 捧甘兩醫司.
효종8년(1657) 5월 26일	藥房入診時, 提調閔□所啓, 近來癘疫漸熾, 以活人署所報見之, 則出幕之類, 殆近三千, 此實災變之大者, 誠爲驚駭. 其救療官一人, 不能周察救護. 曾前亦有加出書員之例云, 故移文戶曹, 使之給料, 則謂無臚錄而不施. 戶曹凡事, 必從臚錄, 而此則事勢甚急, 勿論臚錄有無, 似當別樣變通, 限癘疫止息間, 救護書員一人, 特爲加出, 題給料布何如? 且所入藥物多數, 惠民署疲殘, 貢物人, 無以支堪云, 此亦當有參酌給價之道. 至於器皿·紙地·生薑等物, 因政院分付, 一番上下之後, 不爲繼給云. 連續覓送之意, 自政院另加申飭, 恐爲得宜矣. 上曰, 此事, 前已別爲下教矣. 所達事, 竝依爲之, 而着實救療之意, 更加申飭, 可也. 閔□曰, 出幕之類, 頃自賑廳, 一巡給米, 而此後更爲連續救濟事, 亦爲分付矣. 上曰, 依爲之.	日今五月二十六日, 藥房入診時, 提調閔所啓, 近來癘疫漸熾, 以活人署所報見之, 則出幕之類, 殆近三千, 此實災變之大者, 誠爲驚駭, 其救療官一人, 不能周察救護. 曾前亦有加出書員之例云, 故移文戶曹, 使之給料, 則謂無臚錄而不施. 戶曹凡事, 必從臚錄, 而此則事勢甚急, 勿論臚錄有無, 似當別樣變通, 限癘疫止息間, 救護書員一人, 特爲加出, 題給料布何如? 且所入藥物多數, 惠民署疲殘, 貢物人, 無以支堪云, 此亦當有參酌給價之道. 至於器皿·紙地·生薑等物, 因政院分付, 一番上下之後, 不爲繼給云. 連續覓送之意, 自政院另加申飭, 恐爲得宜矣. 上曰, 此事, 前已別爲下教矣. 所達事, 竝依爲之, 而着實救療之意, 更加申飭, 可也. 閔□曰, 出幕之類, 頃自賑廳, 一巡給米, 而此後更爲連續救濟事, 亦爲分付矣. 上曰,

已上癘祭臚錄	依爲之.
--------	------

<표19> 효종 8년(1657) 5월 13일의 기사는 ‘염병(染病) 환자의 구료(救療)와 논상(論賞)에 관해 해당 기관에서 받들어 시행하라.’라는 내용의 전교이다. 동년 5월 26일 기사는 점치(漸熾)하는 나역(癘疫)을 구료할 방법을 아뢰는 약방제조(藥房提調)의 제이다. 나머지 3가지 기사는 부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8년 5월 13일의 표를 보면 먼저 개수본일기에는 말미에 ‘已上厲祭臚錄’으로 전거 출처를 기록한 부분, 여제등록의 경우 두서에 ‘一傳曰’로 표기한 부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내용은 두 기록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동년 5월 26일 기사도 여제등록의 두서에 ‘日今五月二十六日’로 날짜를 표기한 부분, 개수본일기 말미에 여제등록이라는 전거 출처를 표기한 부분의 차이를 제외하고 본문이 일치한다.

기사의 내용은 그대로 전재 하였으나 여제등록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정유년 5월 13일, 5월 26일, 6월 초1일, 6월 초2일, 6월 초10일, 7월 19일의 기사가 잘못 기재되었다. 이는 정유(丁酉)년을 혼동하여 숙종 43년(1717)의 기사를 효종 개수본일기에 기재한 것이다.¹³³⁾ 이러한 혼동은 개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사료간의 교차 비교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하는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함으로써 내용적 결함을 줄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제등록 뿐만 아니라 훈국등록(訓局臚錄)의 경우에도 자구(字句)의 차이 외에 범례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개수본일기에 그대로 전재되어있다.¹³⁴⁾

3) 실록: 『仁祖實錄』

인조대 개수본일기에는 실록이 총 11건 인용되었다. 인용 기사의 범위는 인조 1년(1623) 3월 12일~21일, 25일이다. 영조는 1747년 6월 19일에

133) 김유리, 2018, 「죽은 자를 살리는 왕-조선후기 무주시(無主尸) 제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법제사특수연구 기말리포트, p.3

134) 강성득, 2007, 위의 논문, p. 744.

인묘조(仁廟朝) 실록을 베낄 때 전문을 베끼지 않고 반정만 베낄 것과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정사(政事), 선왕(先王)의 덕정(德政)을 살펴 뽑아 개수본일기에 수록할 것을 명하였다.¹³⁵⁾ 이렇게 인조 초기에 국한하여 실록을 인용한 것은 반정(反正)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수록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조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과 소론세력의 정통성이 반정에서 출발하였다는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다.¹³⁶⁾

영조의 주관에 개입되어 등출된 실록 기사는 대부분 전문을 베끼지 않고 기사의 내용을 발췌하는 형식으로 일기에 작성하였다. 요약, 발췌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진 않고 관원의 재량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인용된 실록 기사의 내용을 반정, 관직 제수, 전교라는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반정과 관련한 개수본일기 인조 1년(1623) 3월 12일의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겠다.

<표20> 반정과 관련된 기사 본문 비교

인조대 개수본일기	인조실록
①夜二更, 期會于洪濟院, 金瑬爲大將, ②上率親兵, ③至延曙驛, 迎李曙軍④長湍兵七百餘人. 金瑬·李貴·沈器遠·崔鳴吉·金自點·宋英望·申景裕等所領諸軍, 亦六七百人. 夜三鼓, 至彰義門, 斬關而入, 遇宣傳官伺察城門者, 前軍斬之, 遂鼓噪而進. 直至昌德宮. 李興立, 陳於闕門洞口, 按兵不動, 哨官李沆, 開敦化門, 義兵直入闕內, 衛士皆散. 光海, 由後苑門出走. 兵人爭入寢殿, 燃炬搜覓, 火延藪簾, 因燒諸殿. 上踞繩床, 坐仁政殿階上. 禁中直宿之官, 皆竄伏, 捕都承旨李德洞, 輔德尹知敬至,	…義兵以是 ①夜二更, 期會于弘濟院, 金瑬爲大將, 而聞有告變, 欲待捕者至, 殺之而往. 頃之未發, 沈器遠、元斗杓等, 馳往其家, 謂曰: “期會已迫, 豈可坐待拿命?” 瑬遂往. 李貴、金自點、韓嶠等, 先往弘濟院, 會者纔數百. 金瑬與長湍兵, 皆未至. 聞變書已入, 衆情洶懼, 李貴乃推兵使李适爲大將, 部分號令, 衆乃定. 瑬至, 傳令招适, 适大怒, 欲不從, 貴和解之. ②上率親兵, 出 ③至延曙驛, 迎李曙軍, 人以延曙爲奇識. ④長湍兵七百餘人, 金瑬、李貴、沈器遠、崔鳴吉、金自點、宋英望、申

135) 『日記廳謄錄』英祖 23年(1747) 6月 19日.

136) 강성득, 2004, 위의 논문, p.28.

<p>兩人初皆不拜，審知義舉，乃拜出。命牌招李廷龜等，厥明，百官咸集，朴鼎吉，以兵曹參判先至，判書權縉繼至言，鼎吉，與宗室恒山君，聚軍而今入來，恐有內應之意，卽引出鼎吉斬之。拿問恒山君，無事實釋之。⑤誅尙宮金氏，承旨朴弘道。⑥光海走匿于醫官喪人安國臣家，着國臣白衣冠，國臣來告，遣將士昇至，廢世子亦亡匿，爲軍人所得。上初入宮，卽送金自點·李時昉，啓達反正之意于王大妃，大妃下教曰，十年幽閉之中，無人來問，爾是何人，乃於中夜，無承旨·史官而如是直啓乎？兩人還奏。已上因傳教考出實錄。¹³⁷⁾</p>	<p>景裕等所領諸軍，亦六七百人。夜三鼓，至彰義門，斬關而入，遇宣傳官伺察城門者，前軍斬之，遂鼓噪而進，直至昌德宮。李興立陣於闕門洞口，按兵不動。哨官李沆開敦化門，義兵直入闕內，衛士皆散。光海由後苑門出走，兵人爭入寢殿，燃炬搜覓，火延亂簾，因燒諸殿。上踞胡床，坐仁政殿階上，禁中直宿之官，皆竄伏。捕都承旨李德洞、輔德尹知敬至，兩人初皆不拜，審知義舉，乃拜。出命牌招李廷龜等。厥明，百官咸集，朴鼎吉以兵曹參判先至，判書權縉繼至，言鼎吉與宗室恒山君聚軍，而今入來，恐有內應之意。卽引出鼎吉斬之，拿問恒山君，無事實，釋之，而鼎吉罪惡，自當被誅，人快之。⑤誅尙宮金氏、承旨朴弘道。金尙宮，宣廟宮人也。光海嬖之，所言皆從，權傾內外，且交結爾瞻諸子及弘道輩，往來其家，無復防禁，至是，首誅之。弘道凶戾，在凶黨中特甚，捕於闕內誅之。⑥光海走匿于醫官喪人安國臣家，着國臣白衣冠，國臣來告，遣將士昇至。廢世子亦亡匿，爲軍人所得。上初入宮，卽送金自點·李時昉，啓達反正之意于王大妃。大妃下教曰：“十年幽閉之中，無人來問，爾是何人，乃於中夜，無承旨、史官而如是直啓乎？”兩人還奏，…¹³⁸⁾</p>
---	---

인조 1년 3월 12일 개수본일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밤 2

137) 『承政院日記』 仁祖 1年 3月 12日.

138) 『仁祖實錄』 卷1 仁祖 1年 3月 13日.

경(更)에 홍제원(弘濟院)에 모이기로 약속하였고 김류(金瑬)가 대장이 되었다. 이귀(李貴)·심기원(沈器遠)·최명길(崔鳴吉) 등이 거느린 군사가 6~7백 명이였다. 밤 3경에 창의문(彰義門)을 부수고 진입하여 창덕궁(昌德宮)에 이르렀다. 광해는 후원(後苑)문을 통해 달아났다. 박정길(朴鼎吉)을 참수하고 항산군(恒山君)을 잡아 문초하였다. 광해는 안국신(安國臣)의 집으로 달아났고 폐세자(廢世子)도 도망쳤으나 군인에게 잡혔다. 김자점(金自點), 이시방(李時昉)을 보내 왕대비에게 반정의 뜻을 계달하니, 대비가 하고 하였다.’ 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인조 실록의 생략과 하략 부분은 12일 개수본일기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낸다. 밑줄 친 부분은 개수본일기에 인용된 부분을 실록 기사에 표시한 것으로, 실록기사의 중간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개수본일기에 수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기록의 내용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실록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는 인조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 광해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수본일기에 수록하지 않고 반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실록기사는 3월 13일 기사로 개수본일기 기사와 날짜가 다를 수 있다. 13일 실록 기사를 개수본일기에 12일과 13일 이틀에 나누어 작성하였다. 아마 12일 실록기사가 존재하지 않아 13일의 실록 기사를 개수본일기에 나누어 작성하였지 않았나 싶다. 또 실록이 편년체 기록물이긴 하지만 반정과 관련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날짜를 정확히 따르기 보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개수본일기에 수록하였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물을 주제로 한 개수본일기 인조 1년(1623) 3월 14일의 기사와 실록본문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21> 인물과 관련된 기사 본문 비교

인조대 개수본일기	인조실록
①朴承宗, 與其子自興出走, 自縊而死.	①朴承宗與其子自興, 出走自縊而死.

已上因傳敎考出實錄. ¹³⁹⁾	承宗出身宣廟朝，以幹局稱，所至能舉其職，而締結永慶，久據要路。及光海時，其子自興之女爲廢世子嬪，權勢日盛，…。 ¹⁴⁰⁾
----------------------------	---

위의 개수본일기는 ‘박승종(朴承宗)이 그 아들 박자흥(朴自興)과 함께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라는 내용이다.

실록 본문은 ‘박승종이 그 아들 자흥과 함께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승종은 선묘조(宣廟朝)때 출신하여 재간과 기국이 있는 자로 일컬어졌고 이르는 곳마다 직책을 잘 수행했다. 유영경(柳永慶)과 결탁하여 오랫동안 요로에 있었는데, 광해 때에 이르러 그 아들 자흥의 딸이 폐세자의 빈(嬪)이 됨으로써 권세가 날로 성해졌다. …’ 라는 내용의 기사이다.¹⁴¹⁾

개수본일기에는 박승종과 박자흥이 자결한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실록에는 박승종 부자에 관한 평가가 기록되어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인물 평가부분과 하략부분의 내용을 모두 생략한 것을 볼 때 주관적인 평가를 수록하지 않는 것은 개수본일기의 실록 인용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승정원일기(개수본일기 포함)와 실록의 성격이 엄연히 다를 수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실록은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위해 사관이 서술한 역사서인 반면 승정원일기는 주관적 평가 없이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이다.¹⁴²⁾ 동일한 사항이라도 두 기록의 서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의 서로 다른 성격이 전거자료를 인용할 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음 3월 15일, 16일, 17일, 19일, 25일 일기의 기사는 관직 제수에 관한 내용이다.

139) 『承政院日記』 仁祖 1年 3月 14日.

140) 『仁祖實錄』 卷1 仁祖 1年 3月 14日.

14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142) 김종수, 2003, 「승정원일기 편찬체제와 타 문헌과의 비교 검토」, 『인문학논총』3, p.402.

<표22> 관직 제수와 관련된 기사 본문 비교

인조대 개수본일기	인조실록
<p>①以李曙爲戶曹判書, ②鄭弘翼爲大司成, ③閔汝任爲右副承旨, ④李尙吉爲兵曹參議, 韓汝湫爲同副承旨, 李愼儀爲刑曹參議, ⑤金夢虎爲工曹參議, ⑥李善行爲奉教, 朴海爲待教, 柳愍爲檢閱. 已上因傳教考出實錄.¹⁴³⁾</p>	<p>①以李曙爲戶曹判書. 曙武人, 曉達文辭, 慷慨有計慮, 廢朝時, 以答虜書收議, 曙獨陳拒絕之義, 識者多之. 與金瑬、李貴, 合謀舉義, 自長湍任所, 領兵來赴, 軍心倚以無恐, 靖社之功, 曙居多焉. ②以鄭弘翼爲大司成, 精敏端重, 素有操守. 及廢母收議之日, 抗言以扶倫紀, 士論偉之. 兇徒仇嫉, 圍籬絕島, 至是, 首拜是職. ③閔汝任爲右副承旨. 汝任爲人清苦, 但未恬靜. ④李尙吉爲兵曹參議, 韓汝湫爲同副承旨, 李愼儀爲刑曹參議. 愼儀以蔭官, 素有名稱, 廢論收議之時, 不顧禍福, 立異扶正, 人皆多之. ⑤金夢虎爲工曹參議, 曾以癸丑臺官, 大君冤死之時, 避辭凶慘, 爲士論所棄, 而其妻與李貴之妻兄弟也. 李貴爲吏曹參判, 不避姻婭之嫌, 乃於鼎革之初, 敢爲注擬, 物議非之. ⑥李善行爲奉教, 朴海爲待教, 柳愍爲檢閱. 善行、海, 宣廟末, 爲柳永慶所推薦, 得拜史職, 永慶敗, 皆坐廢, 至是敍用. 愍爲人癡騃, 爲世笑罔, 借述李進, 冒占科第, 連姻益燁, 得參翰薦, 人皆賤侮, 而史局舊例, 除非罷散, 循次還付, 故竝授是職. 翌日臺諫, 卽劾去之.¹⁴⁴⁾</p>

개수본일기 기사의 내용은 ‘이서(李曙)를 호조판서로, 정홍익(鄭弘翼)을

143) 『承政院日記』 仁祖 1年 3月 17日.

144) 『仁祖實錄』 卷1 1年 3月 17日.

대사성으로, 민여임(閔汝任)을 우부승지로, 이상길(李尙吉)을 병조 참의로, 한여직(韓汝潑)을 동부승지로, 이신의(李愼儀)를 형조 참의로, 김몽호(金夢虎)를 공조 참의로, 이선행(李善行)을 봉교로, 박해(朴海)를 대교로, 유흠(柳愼)을 검열로 삼았다.’ 라는 내용이다.

실록 본문을 보면, 이서(李曙)를 호조 판서로 삼았고 이서는 무인으로 문사(文辭)에 통달하고 강개하며 계책이 있었고 폐조 때 오랑캐의 서신에 답하는 일로 인해 식자들이 이서를 훌륭히 여기었다는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 앞서 서술한 14일 <인물>의 기사처럼 17일 <관직 제수> 에도 이서 등 인물에 대한 평가와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개수본일기에 인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록의 내용이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전교>를 주제로 한 3월 18일의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23> 전교와 관련된 기사 본문 비교

인조대 개수본일기	인조실록
上下敎曰，禁府昨請加造枷杻，予甚驚惻．三省則親祭齋戒日，決不可開坐，被囚輕罪，大臣禁府堂上，會于闕內，急速議處，俾無冤枉之弊．且百官尙爲戎服，氣象不好，自明日勿爲戎服．已上因傳敎考出實錄. ¹⁴⁵⁾	上下敎曰 禁府昨請加造枷杻，予甚驚惻．三省則親祭齋戒日，決不可開坐．被囚輕罪，大臣禁府堂上，會于闕內，急速議處，俾無冤枉之弊．且百官尙爲戎服，氣象不好，自明日，勿爲戎服. ¹⁴⁶⁾

위의 개수본일기 기사는 국왕의 하교(下敎)이다. “의금부가 어제 형구(刑具)를 더 만들자고 청하여 내가 매우 놀랐고 가슴이 아팠다. 삼성(三省)은 친제(親祭)의 재계일(齋戒日)에는 결코 개좌(開坐)해서는 안 된다. 수금(囚禁)된 죄인 중 경죄수는 대신과 의금부 당상이 궐내에 모여 신속히 의처(議處)함으로써 원통하고 억울한 폐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백관들이 아직 용복(戎服)을 입고 있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 내일부터는

145) 『承政院日記』 仁祖 1年 3月 18日.

146) 『仁祖實錄』 卷1 1年 3月 18日.

융복을 착용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다.

개수본일기 기사와 실록의 본문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일기와 실록의 본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보통 전문을 등사하지 않았는데, 18일의 경우 실록과 개수본의 본문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의 전교는 모두 쓴다.’ 라는 개수일기범례의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18일 실록에는 는 융복 착용을 중지하라는 하교 말고도 7가지의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그 중에서 왕의 전교와 관련된 것을 선별하여 이를 전문 등사하는 방식으로 개수본일기에 전제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개수본일기에 인용된 실록이라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인조대 초기에 국한하여 인용되었다.

둘째, 인용 내용은 반정, 인물, 관직 제수로 분류 할 수 있다.

셋째, 실록에 기재되어있는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개수본일기에 작성하지 않고 사실 위주의 기록만 수록했다.

넷째, 개수일기범례를 바탕으로 실록 기사를 선별하였다. 예를 들어 왕의 전교의 경우 모두 수록한다는 범례에 따라 전교와 관련된 기사는 개수본일기에 전문을 수록하였다.

다섯째, 실록의 내용을 요약·발췌하는 형태로 개수본일기에 기록하였다.

여섯째, 실록과 개수본일기의 본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본 장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전거자료를 개수본일기에 인용할 때 기본적으로 범례를 기준으로 하여 전거자료 내 기사를 선별하고 수록한 경향을 보인다. 전거 유형별로 인용된 양상은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으로 개수본일기 본문과 인용된 자료의 본문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비변사등록의 경우 당대에 중요 기록으로서의 위계와 일지 형식, 편년체 기록이라는 점에서 개수본일기에 많은 부분 인용되었다. 본문을 그대로 베껴므로 개수본일기에 수록된 기사와 비변사등록의 본문이 일치한다. 여제등록은 효종대에 한정하여 5회 정도 인용되었으며 전문을 등사

하는 형태로 일기에 수록되었으며 내용이 동일하다. 실록의 기사는 인조 대 초반에 주로 인용되었으며, 평가 부분을 제외한 사실 부분을 추려 개수본일기에 기록하였다. 인용된 실록의 기사와 개수본일기의 본문의 내용이 같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수본일기 기사 말미에 인용한 전거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출처를 표기하였다는 의미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수본일기 기사 말미에 교정과 서역을 한 관원의 이름을 쓴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개수본일기라는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제 4 장 결론

본 논문은 영조대 개수본일기 편찬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수본일기가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기록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를 증명해 내고자 하였다.

첫째, 개수본일기의 편찬 실재와 기록관리절차를 살펴보았고, 둘째, 인조대 개수본일기를 영조대일기와 구조, 범례, 수록기사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형태적 특징을 탐색하였다. 셋째, 전거자료와 개수본일기의 비교를 통해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크게 영조의 정치적 의도, 승정원일기 소실로 인해 업무의 지장이 생긴 관원들의 개수 요구, 당대 사람들이 승정원일기에 대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개수본일기의 편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집, 선별, 분류, 편철, 보존, 관리까지 체계적인 기록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수본일기를 편찬하는 일인 ‘개수’라는 작업이 조선의 전통적인 기록관리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두 일기 모두 크게 간지·날짜·날씨·좌목·경연상참여부, 출납문서 등사, 국왕·신하의 언동 기록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일기의 형태가 동일하다. 출납문서 부분은 공통적으로 문서별 수록형태가 거의 유사하나 기재순서에서 조금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언동 기록 부분은 영조대일기와 유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범례 비교에 의하면 인조대 개수본일기와 영조대일기 모두 범례의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범례에는 없지만 각 일기에 수록된 문서들을 볼 수 있는데 인조대일기의 경우 관원의 현황, 입시, 별시 등의 명단 등 17가지 문서가 수록되었고 영조대일기에는 수서 등이 수록되어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개수본일기는 영조대일기와 큰 구조는 동일하나 각 구조별 문서의 수록방식과 유형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개수본일기를 영조대일기와 최대한 비슷하게 복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燼餘日記, 備邊司謄錄, 厲祭謄錄, 仁祖實錄이 개수본일기에 인용될 때 전문을 그대로 베끼는 형식으로 수록되거나 요약, 발췌하는 형태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비변사등록과 여제등록이 해당되며, 실록은 전자와 후자 모두 해당된다. 전거 별로 개수본일기의 기사와 비교해 본 결과 개수본일기의 기사와 각 전거자료들의 본문의 내용이 같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전거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개수본일기가 내용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도출하고 해석할 수 있겠다. 첫째, 이 연구는 개수본일기를 기록학적 관점에서 편찬 실제와 기록관리절차를 탐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수를 조선의 전통적인 기록관리방식이라고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개수본일기를 영조대일기와 형태적, 내용적으로 비교하여 개수본일기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개수본일기에 대한 기록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지식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고의 분석을 통해 개수본일기 편찬이 현대기록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의 결과와 의의가 현대 기록학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인가. 개수 배경을 탐색한 결과, 개수는 단순히 정치적 의도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의 개수 의지가 분명 존재했었고, 이는 물리적, 재정적으로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복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도 이러한 기록에 대한 인식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어 개수 과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개수는 일정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절차를 갖추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현대 한국의 기술적인 차이가 물론 존재하지만 소실된 기록

을 본래의 모습과 같이 복원하고자 할 때 조선의 개수 과정을 참고할 수 있겠다. 특히 다양한 자료를 찾아 인용하려고 하였던 점, 출처를 표기하였다는 점, 일기 작성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점 등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수본일기를 형태적·내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록으로서 마땅히 갖춰야할 구조, 내용,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본래의 승정원일기를 재현하고자 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은 현대보다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록을 남겨 후대에까지 전승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기록학이 추구해야할 가치, 지향해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고민해야하는 필요성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개수본일기에 대한 기초적인 기록학적 연구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 범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개수본일기를 포함한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 관한 기록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원 전 자 료

『經國大典』

『厲祭膳錄』

『日記廳膳錄』

『銀臺便攷』

『承政院日記』

『政院故事』

『朝鮮王朝實錄』

『典律通補』

2. 저 서 및 역 주 서

국사편찬위원회, 1970, 『承政院日記』, 도서출판 탐구당

김태웅·이강욱 외, 2017, 『교점역해(校點譯解) 정원고사(政院古事)』, 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

소진희 외, 2015, 『日記廳膳錄』, 민족문화추진회

최승희, 1989,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한국고전번역원, 2013, 『후설 승정원일기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다』, 한국
고전번역원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4. 논 문

강성득, 2004, 「영조대 승정원일기의 개수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석
사학위논문

———, 2007, 「典據를 통해 본 英祖代 承政院日記 改修의 性格」, 『사학
연구』88

- 김종수, 2003, 「승정원일기 편찬체제와 타 문헌과의 비교 검토」, 『인문학논총』3
- 김한상, 2018, 「體用論과 朱熹 철학의 태극 개념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74,
- 노인환, 2014,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명경일, 2014,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승정원일기의 문세 등록 체계」, 『고문서연구』44
- 신병주, 2001, 「『承政院日記』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朝鮮王朝實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규장각』24
- 오항녕, 2006, 「조선후기 승정원일기 개수 연구」, 『태동고전연구』22
- 이강욱, 2010, 「啓辭에 대한 考察-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37
- _____, 2010,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34
- 이근호, 2003, 「승정원일기 보고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한국사론』37
- _____, 2004,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과정의 검토」, 『조선시대사학보』3
- _____, 2016, 「조선 후기 舉行條件의 制定과 承政院의 역할」, 『규장각』49
- 이형중, 2010, 「조선시대 등록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한희, 2007,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서지학연구』37
- 윤훈표, 2010, 「승정원일기 경연 기사의 특징」, 『사학연구』100
- 정만조, 2003,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적 가치」, 『한국사론』37
- 조계영, 2016, 「승정원일기의 修納과 관리에 대한 고찰」, 『규장각』49
- 최재복, 2003, 「승정원일기 대화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한국사론』37
- 한충희, 1987, 「조선초기 승정원연구-실제기능과 통치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59

5. 웹 페이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db.snu.ac.kr>, 최종검색일: 2019.04.26.)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최종검색일: 2019.07.23)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최종검색일: 2019.06.07)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 최종검색일: 2018.12.17)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최종 검색일: 2019.07.23)

부 록

<부표1> 개수본일기와 비변사등록의 본문

연월일	개수본일기	비변사등록
1641년 1월3일	<p>備邊司啓曰, 今番三件刷還, 實出於不得已之舉, 爲守令者, 所當十分明查, 俾無橫罹之冤, 而要免一時罪罰, 苟有所得, 不辨虛實眞僞, 抑勒充送, 致令不當刷之類, 多數枉陷, 冤痛徹天, 慘不忍聞. 先運來到本司者, 急於報知, 灣上文書, 卽爲入送. 故臣等未及覈實, 而各其道直送者, 亦無可知之路. …(중략) 上項各邑守令等所爲, 委屬可駭, 分輕重, 茂朱·任實·沃川等三官, 先罷後推, 其餘禮山·尼山·大興·洪州·沔川·德山·木川·定山·稷山九官, 從重推考. 以爲後日不能舉職者之戒, 宜當. 且兩道監司, 亦不無不能檢飭之失, 請竝推考, 答曰, 依啓. 茂朱等守令, 拿鞠定罪. 以上備局臚錄</p>	<p>啓曰, 今番三件刷還, 實出於不得已之舉, 爲守令者, 所當十分明查, 俾無橫罹之冤, 而要免一時罪罰, 苟有所得, 不辨虛實眞僞, 抑勒充送, 致令不當刷之類, 多數枉陷, 冤痛徹天, 慘不忍聞, 先運來到本司者, 急於報知灣上, 文書卽爲入送, 故臣等未及覈實, 而各其道直送者, 亦無可知之路, …(중략) 上項各邑守令等所爲, 委屬可駭, 分輕重, 茂朱任實沃川等三官, 先罷後推, 其餘禮山·泥(尼)山·大興·洪州·沔川·德山·木川·定山·稷山九官, 從重推考, 以爲後日不能舉職者之戒宜當, 且兩道監司, 亦不無不能檢飭之失, 請竝推考, 答曰, 依啓, 茂朱等守令, 拿鞠定罪.</p>
1642년 1월13 일	<p>又啓曰, 接慰官李泰運, 帶同譯官洪喜男·李長生, 十五日, 當爲發送. 平倭到此之後, 未知所欲議者何事, 而姑以東萊</p>	<p>啓曰, 接慰官李泰運, 帶同譯官洪喜男李長生, 十五日當爲發送, 平倭到此之後, 未知所欲議者何事, 而姑以東萊府使狀啓</p>

	<p>府使狀啓觀之，則彼欲探問錦州形勢之意也。酬酢之際，不可不詳慎，彼若問我國助兵與否，則當答以，東宮方在彼中，而清國悉衆西去，故陪衛孤單，調遣若干軍兵云云。若問兩軍強弱，則當答以，錦州被圍已久，勢成蚌鷸，時未結末云，而與本國極遠，兵機亦密，不能詳聞云。若問中原與清兵相戰年月，則當答以，上年八月間大戰，互相勝負云，而異國之事，不能詳知云云。此外問答，則勢難逆料指授，惟在臨機應變，而至於難處之事，則馳啓後議處，宜當，敢啓。答曰，依啓。 以上備邊司謄錄</p>	<p>觀之，則彼欲探問錦州形勢之意也，酬酢之際，不可不詳慎，彼若問我國助兵與否，則當答以東宮方在彼中，而清國悉衆西去，故陪衛孤單，調遣若干軍兵云云，若問兩國強弱，則當答以錦州被圍已久，勢成蚌鷸，時未結末云，而與本國極遠，兵機亦密，不能詳聞云，若問中原與清兵相戰年月則當答以上年八月間大戰，互相勝負云，而異國之事，不能詳知云云，此外問答，則勢難逆料，指授，惟在臨機應變，而至於難處之事，則馳啓後議處宜當，敢啓，答曰，依啓。</p>
1644년 2월3일	<p>1)備邊司郎廳，以右議政意啓曰，今番王世子東還時，彼中有上候差復後入來之說，故所謂謝恩使，亦未得趁卽差出，已與庚辰前例，有異矣。及至今日，事異初頭，卽者清將催行，或是恐動操縱之意，而臣等一行，顛倒之患，不可不慮。文書·方物·夫馬等事，若能及辦，則十五日推擇日期，似難等待，令該曹參量事勢，稟旨處置，何如？答曰，依啓。 備局謄錄</p>	<p>1)備邊司郎廳，以右議政意啓曰，今番王世子東還時，彼中有上候差復後入來之說，故所謂謝恩使，亦未得趁卽差出，已與庚辰前例有異矣，及至今日，事異初頭，卽者清將催行，或是恐動操縱之意，而臣等一行顛倒之患，不可不慮，文書方物夫馬等事，若能及辦，則十五日推擇日期，似難等待，令該曹參量事勢，稟旨處置何如，答曰，依啓。</p>

	<p>2)又啓曰，平安監司散給泉流庫物貨，多方貿遷，事未就緒，遽已身死，必有花消闕失之弊，新監司赴任之前，都事·庶尹，可以檢察，而都事尹世任，既被本司請罷，必不能晏然行公，庶尹南溟羽，亦已遞任，本道之事，極爲虛疎。新除授庶尹李大純，今日內，除署經，給馬下送，管餉物件，使之急急收拾。且都事處置事，啓達已多日，而尙無發落，么麼一幕官處置，無甚重大，而自上亦爲持難，極爲未安。此人仍留，無益有害，速賜睿斷幸甚，敢啓。 答曰，知道。 備局謄錄</p>	<p>2)啓曰，平安監司，散給泉流庫物貨，多方貿遷，事未就緒，遽已身死，必有花消闕失之弊，新監司赴任之前，都事庶尹，可以檢察，而都事尹世任，既被本司請罷，必不能晏然行公，庶尹南溟羽，亦已遞任，本道之事，極爲虛疏，新除授庶尹李大純，今日內署經，給馬下送，管餉物件，使之急急收拾，且都事處置事，啓達已多日，而尙無發落，么麼一幕官處置，無甚重大，而自上亦爲持難，極爲未安，此人仍留，無益有害，速賜睿斷，幸甚，敢啓，答曰，知道。</p>
1645년 1월5일	<p>院啓，慶興國之大關防，自前不以庶孽下流差遣，恐其不能彈壓也。新府使李應徵，本以庶孽，名跡素賤，以稍解文字，爲軍官書記之任，因此見用，武弁同類，亦識其猥濫久矣。今此除授重鎮，實爲不稱，絕塞軍情，亦必解弛，所關非細，豈可以已爲除拜，而難於遞改乎？李應徵請命改差。 答曰，李應徵事，問于大臣處之。 備局謄錄</p>	<p>院啓慶興，國之大關防，自前不以庶孽下流差送，恐其不能彈壓也，新府使李應徵，本以庶孽，名論素淺，以稍解文字爲軍官書記之任，因此見用，武弁同類，亦識其猥濫久矣，今此除授重鎮，實爲不稱，絕塞軍情亦解弛也，所關非細，豈可以已爲除拜而不爲遞改乎，李應徵請命改差，答曰，李應徵事，問于大臣處之。</p>
1646년	<p>備邊司啓曰，云云事，傳教</p>	<p>啓曰，云云事傳教矣，取考九月</p>

1월3일	<p>矣。取考九月南兵使狀啓，大概，雲寵土兵申男·金德應·鄭率·吳大立，保人金德云·申德男，私奴千龍·玉生，羅暖土保金得生，吉州人申德厚十名，出去不還，飢死丁寧云，而保人金界男，烽軍李一龍，越境病死云矣。今者甲山人七名被捉云，雲寵乃是甲山所屬之堡，而十二名中，七名見捉，則其餘五名，必致死亡矣，敢啓。傳曰，知道。 備邊司謄錄</p>	<p>南兵使狀啓，大概雲寵土兵申男·金德應·鄭率·吳大立·保人金德云·申德男·私奴千龍玉·生羅暖土保金得生·吉州人申德厚十名，出去不還，飢死丁寧云，而保人金界男·烽軍李一龍越境病死云矣，今者甲山人七名被捉云，雲寵乃是甲山所屬之堡，而十二名中七名見捉，則其餘五名必致死亡矣，敢啓答曰，知道。</p>
1647년 1월25 일	<p>備邊司，義州府尹薦望，李時棫落點。 備局謄錄</p>	<p>義州府尹薦望 ○李時棫 李時萬 柳淦</p>
1648년 2월23 일	<p>又啓曰，慶尙監司李曼，明日將爲辭朝，道臣之行，不可無所帶，而本道人馬，未及上來，軍官所騎刷馬三匹題給，前亦有例，以此分付該曹，何如？答曰，允。 備局謄錄</p>	<p>啓曰，慶尙監司李曼，明日將爲辭朝，道臣之行，不可無所帶，而本道人馬未及上來，軍官所騎刷馬三匹題給，前亦有例，以此分付該曹，何如，答曰，允。</p>
1649년 2월6일	<p>傳曰，繕工監諸色匠人，其數零星，進獻方物楨子及各司進排之物造作，尙患不及，而近來諸宮家諸上司，任意捉去，殘司下人，莫敢誰何，每致生事，自今以後，木手及諸色匠人，竝勿任意推捉爲只爲。 以上備局謄錄</p>	<p>傳曰，繕工監諸色匠人，其數零星，進獻方物楨子及各司進排之物，造作，尙患不及，而近來諸宮家諸上司，任意捉去，殘司下人，莫敢誰何，每致生事，自今以後，木手及諸色匠人，竝勿任意，推捉爲只爲。</p>

<부표2> 효종대 개수본일기와 여제등록 본문 비교

연월일	효종대 개수본일기	여제등록
효종7년(1656) 5월 20일	禮曹啓, 備局, 以全南道右水營戰船敗沒時渰死軍卒, 另遣京官, 賜祭海邊之意, 覆啓允下, 而宣諭御史, 已爲差出矣. 當於海邊, 擇淨潔處設壇, 隨時不卜日賜祭, 祭文令藝文館急急製進, 何如? 傳曰, 允. 已上厲祭謄錄	-
효종8년(1657) 6월 1일	禮曹啓曰, 京外癘疫, 日漸熾盛, 止歇無期, 誠極切悶. 取考謄錄, 則在前如此之時, 京中山川·城隍及北郊癘祭外, 遣重臣, 愍忠壇則遣近臣設祭. 各道中央處及險川·雙嶺·金化·兎山·晉州·南原·錦山·漣川·尙州·原州·蔚山等處, 令本道都事·守令中, 擇差設祭. 江華則留守行祭, 而秋冬後, 都城近處無主尸, 亦爲設壇致祭矣. 今亦依此舉行, 何如? 傳曰, 允. 癘祭謄錄	一曹 禮曹啓曰, 京外癘疫, 日漸熾盛, 止歇無期, 誠極切悶. 取考謄錄, 則在前如此之時, 京中山川·城隍及北郊癘祭外, 遣重臣, 愍忠壇則遣近臣設祭. 各道中央處及險川·雙嶺·金化·兎山·晉州·南原·錦山·漣川·尙州·原州·蔚山等處, 令本道都事·守令中, 擇差設祭. 江華則留守行祭, 而秋冬後, 都城近處無主尸, 亦爲設壇致祭矣. 今亦依此舉行, 何如? 傳曰, 允.
효종8년(1657) 10월 14일	禮曹啓曰, 頃因本曹啓辭, 都城近處癘疫死亡無主尸, 待秋冬間設壇致祭事, 允下矣. 城外東西南三郊無主尸, 設壇致祭吉日, 今日官推擇, 則今十月二十七日爲吉云. 以此日遣近臣設行, 而依前例設壇於淨潔處, 祭物, 比癘祭從優磨鍊	一曹 進曰頃因本曹啓辭, 都城近處癘疫死亡無主尸, 待秋冬間設壇致祭事, 允下矣. 城外東西南三郊無主尸, 設壇致祭吉日, 今日官推擇, 則今十月二十七日爲吉云. 以此日遣近臣設行, 而依前例設壇於淨潔處, 祭物, 比癘祭從優磨鍊

	之意，竝爲分付於各該司，何如？答曰，依啓。已上癘祭膳錄	之意，竝爲分付於各該司，何如？答曰，依啓。
--	-----------------------------	-----------------------

Abstract

An Archival study on the The Restoration compilation of the Seungjeongwon Ilgi in the Yeoungjo Reign.

Young-Shin In

Program in Archiv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inquired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rchival perspective about complicated the restoration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in Yeoungjo reign. Based on this, this study conducted to discuss what the Restoration compilation meaning of a moder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Restoration compilation of Seungjeongwon Ilgi was a made decision a traditional archives

management method of Joseon. To prove this theory, the research was don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cords&archives management procedure in their Restoration process was comprehended. In the Restoration process references were selected, collected and then classified by sources. Following the legend, the number of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Restoration Seungjeongwon Ilgi copied from the reference, and the Restoration compilation conserved after editing. This suggests that Restoration work has a consistent archives management process.

Through this process, it comprehended to derive archival characteristics of the Restoration compilation diary by comparing Recovered Restoration compilation diary in term of form and content. First of all, Yeoungjo reign Seungjeongwon Ilgi was compared with Injo reign the Restoration-Seungjeongwon Ilgi in form term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form of a diary by written order, it was found that two diaries were the identical form from the sexagenary cycle(干支) to Gyeong-yeon(經筵), Sangcham(常參). Copied part included in the incomings and outgoings(出納) document was almost the same as that of the included documents, and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the description order of each document. In the case of a part of the king and his servant words and actions, The Restoration-Seungjeongwon Ilgi was relatively small, and written form was found the same part and the part that did no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legend, both diaries were listed matters of regulation in each diary. As a result, it can be understood that when compiling the Restoration-Seungjeongwon Ilgi, it is almost similar to existing

Seungjeongwon Ilgi in terms of formation.

Secondly, examining to understand by comparing with reference and the Restoration-Seungjeongwon Ilgi in term of content and how the Restoration diary was written exact citation as the reference. As a result of comparison with Restoration diary each of the records of 燼餘日記, 備邊司謄錄, 厲祭謄錄, 仁祖實錄. It was found that they were recorded in the form of copying the text or summary and extraction. It was confirmed that content of Restoration diary and quoted reference are almost identical to each other. This shows that the Restoration-Seungjeongwon Ilgi has the structure, content, and context that constitute the record.

Through this, the Joseon Dynasty had the effort to reproduce the original Seungjeongwon Ilgi. At that time, even though the technical limitations existed more than modern times, it shows that ultimately the Joseon Dynasty strived to preserve records for the next generation.

Besides, the way to restore records with proximity to the original records, the way to search for various data and utilize them for recovery, provide the direction toward preserving and repairing records in modern times.

keywords : Seungjeongwon Ilgi, The Restoration, The Restoration-Seungjeongwon Ilgi, Joseon's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Student Number : 2017-26420